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항상 마음에 품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6월 8일 (토) 제 1971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CT, 브라질 대형 교회의 글로벌 교회 개척 플로리다에서 포르투갈, 카자흐스탄에 이르기까지 개척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

플로리다 센터 지역은 집을 잃은 브라질 이민자라면 올랜도에서 꼭 봐야 할 곳이다. 과라나 탄산음료부터 브라가 데이로 사랑까지 남미 국가의 모든 종류의 상품을 상점과 레스토랑에서 구입할 수 있다. 브라질 남부에 있는 인구 약 200만 명의 도시 쿠리치바에 있는 개척 교회인 알칸스 올랜도가 이곳에 있다.

담임 목사인 파울로 수비라 목사는 2017년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플로리다로 이주했다.

“올랜도에 왔을 때는 브라질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얼마 후 모임은 지인의 지인이 오기 시작하며 더 커졌다. 모임이 커져서 집에서 모일 수 없게 되자 호텔에서 모이게 되었다. 수비라는 “그 모임에서 교회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알칸스 올랜도는 300석 규모의 강당에서 두 차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평일에는 올랜도 전역에 퍼져 있는 31개의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모인다. 동생 루치아노가 쿠리치바에서 코뮤니다드 알칸스를 이끌고 있고, 수비라는 현재 플로리다를 떠난 브라질 가족들과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젊은 목사를 양육 중이다. 유럽과 북미의 브라질 이민자 교회 개척은 일반적으로 교단이나 선교 단체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잘 알려진 지역 사역에 의해 시작되며, 브라질 기독교에 있어서



는 새로운 일이다. 이러한 교회 개척은 복음주의 인구의 증가와 이민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합쳐진 결과이다.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신앙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980년 인구 조사에서는 브라질 국민의 6.6%가 복음주의자라고 답변했지만, 2010년에는 그 수가 22.2%로 급증했다. 2022년 조사의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기관 Datafolha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인의 31%가 복음주의자라고 답했다. 인구학자 호세 유스타키오 디니즈 알베스는 2032년에는 복음주의자가 브라질 가톨릭 신자(2010년 인구의 64.4%)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브라질의 인구는 2억 3,000만 명이다. 다른 국가로의 이주는 수년 동안 기록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 그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브라질 외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해외에 거주하는 브

라질인은 460만 명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브라질 커뮤니티는 미국(190만 명)으로 올랜도에만 약 10만 명의 브라질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포르투갈(36만 명)은 외국인 이민자 3명 중 1명이 브라질 출신이다. 글로벌 사우스 출신 이민자들도 유럽에서 기독교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수천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스페인어권 및 브라질 출신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가 어렵다.”라고 최근 보고서에서 짐 메모리(Jim Memory)가 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브라질의 경우, 이러한 교회 중 상당수는 Igreja Universal do Reino de Deus(“하나님 나라의 보편 교회”, IURD)와 같은 소위 신오순절 교파의 일부였으며, 엑스시즘 의식과 변형 복음을 전파하는 성향으로 유명했다. 1990년대부터 IURD는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로 교세를 확장했

다. 최근에는 다른 교단에 수많은 교인을 빼앗겼고, 스캔들로 인해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를 폐쇄해야 했다. 2017년에는 약 2,000명의 브라질 선교사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브라질 타문화 선교회(Associação de Missões Transculturais Brasileiras)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이후 국내외를 포함한 타문화 선교사 수는 연간 6.7%의 비율로 증가해 복음주의 인구 증가율인 연간 5.8%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조직과 성장 모델을 시험할 기회를 얻었다. 한 예로 리우데자네이루에 주요 교회가 있는 Igreja Batista Atitude(IBA)가 있다. 현재 이 교회는 메인 캠퍼스에 15,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6개국 60개 지교회에 14,000명의 회원이 있다. (3면으로 계속)



자살 전염병에 주목하자

지난 몇 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자살에 관해서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그러면서도 주저했다. 주제가 주는 심각성과 민감성 때문에 거부감과 의문감 속에서 갈등했다. 내가 망설임 이유는 자살로 사망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같은 해에 글을 무감각한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전혀 나의 의도가 아님을 강조한다. 나 역시 가족과 친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다. 뉴스에서든 개인 관계에서든,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언제나 마음이 요동친다. 자살은 파괴적이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이다. 나는 고통받지도 모를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자살물은 나날이 치솟고 있고, 교회라고 이 전염병에 면역력이 있는 건 아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살은 “10-34세 인구 사망 원인 2위, 35-54세 인구 사망 원인 5위”이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2023년에 미국 외과의사협회는 정신 건강을 “우리 시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강 위기”라고 말했다. 같은 해에 무려 오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자살했는데, 이는 “역사상 어느 해보다 높은 수치이다. 하버드의과대학의 ‘자살은 전염병이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건 쉽지 않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어떤 묘책이 있다는 식의 접근 방식으로 자살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자살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실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관해서 다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로움, 패배감, 절망감을 느낀다. (6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2면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4면



인터뷰 권혁전 목사 16면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선 교회배너 | 현금통부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1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2024년 한미장로교 장학재단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24 장학생선발공고

목적 | PURPOSE
한미장로교 장학재단의 목적에 준하며, 재미 한인 교회와 재미 한인 공동체를 위해 강령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성으로 봉사하려는 인재 발굴과 양성.
The objectiv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is to discover and to cultivate the future leadership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 community.

신청자격 | ELIGIBILITY
미주지역에 있는 한인장로교회에 소속한 학생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신분 (본 장학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됨).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tudents who meet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①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생활이 독실하며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학생에 한함.
Who upholds the sound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s the sincere Christian life sets an example in their local churches and community commits to serve church and community with a strong conviction of calling.
②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Who has been enrolled in an accredited college,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Master's level)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③ 신학계통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장로교(PCUSA) 산하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함.
For theological students and the M-Div. course at the PCUSA theological seminary.
④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에 한함.
Who is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제출서류 | APPLICATION
특별한 신청 양식은 없으나 다음 1~5번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No official form, but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①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본인 이력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A resume with a photo attached (current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ed).
② 신앙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비전에 관한 진술서 (한글 또는 영문 2페이지)
A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onviction of calling, vocational visio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2 pages).
③ 본인 또는 부모님의 2023년 연방 소득세 1040, 1040A, 또는 1040 EZ 사본
Applicant's or parent's copy of 2023 Federal Income Tax 1040, 1040A or 1040EZ.
④ 추천서 2통
(1) 소속 또는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목사님 추천서
A Presbyterian pastor's letter of recommendation with which one has been affiliated.
(2) 현재 재학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 추천서 1통
A recommendation from an official academic institution professor.
⑤ 본인 재학중인 학업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s of current academic year mailed directly from the institution to the office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 위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회 사무실에 직접 우송해야 합니다.

신청마감 | DEADLINE
신청서 접수 및 우편 소인 마감: 2024년 7월 25일 (접수서류 반환치 않음)
July 25th, 2024 Date of stamp (All submitted documents not be returned).

장학금 내역 | A LIST OF SCHOLARSHIP
1 김득렬 목사, 김복신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2,000.00
The Rev. Tukyul Kim & The Kwonsa Bock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 김득렬 목사 가족 특별 장학생 1명 \$2,000.00
The Rev. Tukyul Kim's Family Spec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3 주형욱 목사, 손철수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2,000.00
The Rev. Hyungok Joo, The Elder Chulsoo So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4 주유남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2,000.00
The Elder Yo-nam Joo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5 이민근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00
The Elder Minkun Lee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6 원수복 장로 장학생 1명 \$1,000.00
The Elder Soobok Wang Scholarship for 1 student
7 홍길두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00
The Elder Gildoo Hong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8 김광열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00
The Elder Kwang Yeal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9 신봉성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1,000.00
The Kwonsa Bongssang Shi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 이범열 집사 기념 장학생 1명 \$1,000.00
The Deacon Bumyul Yi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1 New Life 평생 신앙인 장로교회 장학생 1명 \$1,000.00
New Life Lansing K.P.C. Scholarship for 1 student
12 여명자 목사 장학생 1명 \$1,000.00
The Rev. Myungja Yoo Scholarship for 1 student
13 김해란 권사 장학생 1명 \$1,000.00
The Kwonsa Haeran Kim Scholarship for 1 student
14 미래 장학생 1명 \$1,000.00
Future Scholarship for 1 student

신청서 접수 |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142 Canterbury Cir. Canton, MI 48187
E-mail: kapsf2020@gmail.com, 문의: 734-693-1888

장학금 수여 | THE DATE OF SCHOLARSHIP AWARD
2024년 8월 31일 -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직접 발송함.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 기증자에게 반드시 감사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August 31st, 2024 by mail (Please return your feedback letter with a thanksgiving express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회장: 김중대 장로 | 총무: 안덕치 목사 *본 장학회에 관한 기타 정보는 크리스찬저널 웹사이트 kcjlogos.org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론

챗GPT의 두 모습!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얼마전 AI(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챗GPT 4o 버전이 나왔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얼마든지 묻고 답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대답할 때도 컴퓨터가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며칠 동안 다양한 종류의 질문과 유머를 사용해 창의성의 정도를 실험해 본 후 개인적으로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1. 창의성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 뛰어난 창작자!

실험 삼아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흥부 놀부' 이야기에 대해 알려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흥부 놀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심청전' 이야기를 알려 달라고 했을 때도 전통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흥부 놀부전'과 '심청전'을 섞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는데 놀랍게도 능숙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내에게 들려주는 시'를 창작해 보라고 했더니만 아주 감미로운 그럴듯한 시를 한 편 지어 주었습니다. 대단한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놀랄 뿐입니다.

2.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 완벽한 사기꾼!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취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정보를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시험한 아주 단순한 진실성의 영역에서 챗GPT는 탈락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 중에 '나리 나리 개나리'라는 노래의 가사를 알려 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리, 나리, 개나리. 꽃이 피고 지고, 나리, 나리, 개나리. 꽃이 피고 지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왜 틀린 가사를 말하느냐?'고 꾸짖었더니만 '나리 나리 개나리' 노래 가사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동요 중에 '펼칠 눈이 옵니다'의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펼칠 눈이 옵니다. 울 거 울어도 눈이 옵니다. 펼칠 눈이 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능청스럽게 말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속게 됩니다.

뛰어난 창의성이 진실성을 공유하지 않게 될 때 그런 사회는 언제나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변질되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성이 빠진 AI의 현재 기술은 우리 앞에 놓여진 심각한 도전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해 주었을 때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주제가 최첨단기술이라는 포장에 싸여 인류의 눈을 어둡게 하지는 않는지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고민과 신중함으로 나아 가기를 바라며...

살롬.

hankschoi@gmail.com

이방인 포용이 동성 결혼을 정당화하지 않는 이유

이방인 포용은 동성 결혼을 위한 방향 전환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지난 화요일, 나는 여느 때처럼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교제, 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은 다섯 대륙에서 온, 반세기에 걸쳐서 태어난 사람들이 참여하는 즐겁고 소란스럽고 또 다양한 일종의 컨소시엄이다. 기혼자도 있고 독신도 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몇몇은 스스로를 LGBT+라는 정체성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에게, 성경이 동성 간 성적 관계를 금지한다는 사실은 LGBT+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을 조금만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런 실수를 즉시 깨달을 거라고 그들은 말한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였듯이, 그리스도인이자라면 한때 외부인이었던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싶다. 그런 구절은 동성 결혼의 문을 열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 포용이야말로 동성 간 성적 관계를 정죄하는 여러 본문이 신약성서에 담긴 이유이다. 그리고 그런 본문은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밖에 두지 않고, 모든 인간이 동일한 근거로 예수님의 왕국으로 초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방인 포용이 동성결혼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네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방인 포용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의 믿음을 보신 후 이방인 포용에 대한 입장을 바꾸셨다고 주장한다(마 15:21-28; 막7:24-30). 이는 하나님께서 LGBT+ 포용에 관해서도 생각을 바꾸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여러 면에서 지지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마음을 바꾼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창 12:3)에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을 포용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은 이방인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확립되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상속자지만 그를 거부하는 유대인은 모두 쫓겨날 것이고, 대신에 그를 받아들이는 이방인이 환영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마 8:10-12).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계획의 시행을 선포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으라"(28:18-19).

2. 이방인 포용은 체함에 근거한 게 아니다.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방인의 신앙을 목격한 후 그들을 포용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사도 베드로를 언급한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들의 신앙을 목격한 후 LGBT+를 포용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지 체함만 한 게 아니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까지 받았다(행 10장).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사도로 보낸 바울도 마찬가지였다(행 9:1-19).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함께 이방인에게 부여된 성령에 관해서 보고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느니라"(11:18)라고 대답한다.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거나 유대 음식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회개해야 했다. 그리고 회개하려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했다.

3. 이방인 포용은 신약에 분명하게 동성애에 관해서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있는 이유이다.

동성 결혼을 긍정하는 이유로 동성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은 예수님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유대법은 분명하게 동성 간 성관계를 정죄한다(예: 레 18:22). 따라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밝힐 필요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도 강조하지 않았다. 그

걸 모르는 유대인이 없었으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남성 간의 성관계가 흔한 1세기 이방 세계로 바울을 보내셨다. 따라서 바울이 동성 성관계를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힌 것은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예: 롬 1:26-28; 고전 6:9-11; 딤후 1:9-11). 이것은 바울이 우상 숭배를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예: 고전 10:20).

4. 이방인 포용은 동성 결혼을 위한 방향 전환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이동 방향을 도표화하면, 동성 결혼을 긍정하는 궤적을 발견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율법과 비교할 때, 그러한 궤적은 찾을 수 없다. 이혼에 관한 질문에서, 예수님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평생 지속되는 한 육체의 결합임을 강조하셨다(마 19:1-9). 그는 또한 간음이 육체 수준을 넘어서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해당한다고 말씀으로,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간음을 금지한다(5:27-28). 동성 간의 성관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구절이 구약에는 두 개인 반면(레 18:22; 20:13), 신약성경에는 적어도 세 개 이상 있다(롬 1:26-28; 고전 6:9-11; 딤후 1:9-11). 더욱이, 성경의 장엄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혼이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영원한 연합의 일시적인 "모델(scale model)"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종종 불충실한 아내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으로 묘사된다(예: 사 54:5; 렘 3:20; 겔 16장; 호 2장).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주장할 때(막 2:19-20),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패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이미 수상 경험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KAPC Magazine Βασιλεία 창간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를 이룬 영적 디지로그(Digilo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권혁천 목사)는 제 48회 총회를 기해 매거진 'Βασιλεία-바실레이아'(KAPC 출판국)를 출간했다. 지난 회기 총회에서 매거진을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1년 동안 준비되어 왔던 바실레이아의 퍼낸은 김성국 목사(직전 총회장)이며 편집인 이영진 목사, 감수 손기성, 이동진, 주양명 목사, 디자인 김광근 목사의 첫 열매다.

본 바실레이아는 구성은 47회 총회장 김성국 목사의 발간사를 비롯해 올 신임총회장 권혁천 목사의 축하메시지, 매거진에 바라는 비전의 글들이 수록됐다. 이어 KAPC의 비전과 세계 선교화관 관련 칼럼, 신학 논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등 심도 깊은 글들이 게재됐고, 재미



이동진 목사

있는 콩트도 한 몫을 더해 총 120여 쪽으로 구성됐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 편집위원들의 간단한 소감을 들어 보았다.

△ 출판부장 이영진 목사는 “500년 전 종교개혁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인식론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거듭나게 한 실제적인 운동이었다 것처럼, 함께 고민하고 수고하며 빛어간 바실



주양명 목사

레이아의 한 장 한 장은 신앙적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절실한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또 다른 개혁운동이자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순수를 향한 여정이기도 했다”고 에필로그를 통해 그간의 심정을 적었다.

△ 출판부 서기 손기성목사는 “출판국 위원들의 수많은 회의를 통해 준비됐다. 가능한 전문



손기성 목사

적이고 실질적이며 사역과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글, 감동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문학적인 글, 교단 이슈 신학들과 온 총회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지옥강화’ 논문도 수록했다”며 “첫 작품, 첫 열매여서 아쉬움도 많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 감수인으로 수고한 이동진

목사는 “바실레이아 편집팀은 교단의 정체성과 활동과 꿈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비록 아날



로그의 종이책에 담았지만, 페이지를 펼치면서 우리는 디지털적 미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탐을 쌓는 첫 단을 놓았지만, 영원과 잇대어 있는 구속사적 이야기와 연결되는 총회 매거진은 그야말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를 이룬 영적 디지로그(Digilog)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 주양명 목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와 목사님들은, 미주 지역만 해도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양한 목사님들에게 매거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의 연령과 지역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기회를 드리곤 했다.”며 “총회 매거진이 있어야 하는 당위성과 그에 대한 광고 등이 총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총회를 나타내는 얼굴로써,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매거진을 접하며, 동일한 보수적인 정체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글과 그림의 조화, 많은 의미를 담은 표지, 이 모든 디자인은 김광근 목사의 탁월한 재능의 산물이다. 모쪼록 다음 제 49회 총회에서도 더 발전된 ‘바실레이아’를 만나 볼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이성자 기자)

브라질 대형 교회...

(1면에서 계속)

전 영부인 미셸 불소나루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애티튜드(Attidue, 브라질 침례교단 소속)는 현재 플로리다의 올랜드와 디어필드, 캐나다 밴쿠버,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투, 영국 밀턴 케인즈, 모잠비크 라메고에 교회를 두고 있다.

IBA의 담임목사인 호세 발란드로는 두 가지 유형의 전략으로 교회 개척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유형을 모잠비크의 경우처럼 ‘의도적’이라고 부른다. 아마존 유역의 강변 지역, 브라질 북동부의 세르타네오 또는 시골 지역,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등 브라질 선교의 전통적인 장소들이 여기에 해당했다. 현재 애티튜드는 이 지역

으로 파송될 17명의 남녀 선교사를 훈련하고 있다.

또 다른 유형은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처럼 회원들의 관계와 여행에 의해 주도되는 ‘유기적인’ 유형이다. 2년 전, 안드레 올리베이라 리스본의 예술적인 중심지인 프리시페 레알 지역에 애티튜드를 설립하는 일을 도왔다. 그 이후로 올리베이라는 포르투갈 기준으로는 이례적으로 4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포르투갈복음주의협회(AEP)에 따르면 2021~2022년에 50명 이상에게 세례를 준 교회는 포르투갈 전체 교회 중 3%에 불과했다. 유일한 문제는 세례를 받은 사람 중 단 4명만이 포르투갈인이라는 점이다. (AEP 데이터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복음주의 교회 중 29.3%가 75% 이상의 외국인을 두고 있다.)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온다 두라 교회의 과제이다. 이 교

회는 1800년대 브라질 국가 가사를 쓴 시인 호아킴 소리오 두케 에스트라다의 증손자인 필리페 “리팡” 두케 에스트라다가 2007년 브라질 남부의 조인빌에 설립한 모교회이다. 팔이 문신으로 뒤덮여 있고 귀에 피어싱을 한 리팡은 조상의 시적 재능을 물려받지 못했다. 대신 그의 재능은 현대적인 언어와 예배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온다 두라(Onda Dura)는 “하나님의 파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생각을 반영하여 “지속되는 파도”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교회 이름 자체가 서핑에 대한 목회자의 애정과 공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온다 두라의 메인 캠퍼스에는 2,700명의 회원이 있다. “처음부터 교회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리팡은 말했다. 수년간 브라질 전역에 교회를 개척한 후, 해외에 거주하는 브라질 이민자

들이 콘텐츠 스트리밍 이상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온다 두라 교회는 다른 나라에 공식 개척 지부를 개설했다.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찾지 못해 제자 훈련과 목회를 받기 위해 우리를 찾아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온다 두라 교회는 온라인상에 전담 목회자와 자원봉사자 팀을 두고 신자들이 어디에 있든 다가간다. 이들은 매주 성경적 훈련과 전도에 초점을 맞춘 제자 훈련 과정을 진행했다. 그런 다음 이 리더들은 온라인 교회 신자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함께 예배를 시청하고 주중에 모이도록 독려했다. 최종적으로 온다 두라는 교회 개척이나 지역 목회자를 파송하여 해당 커뮤니티를 온전한 교회로 이끌도록 했다. “온다 두라 온라인 아이디어는 단순히 콘텐츠 소비자를 모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실제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리팡은 말했다. 온다 두라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현재 매주 일요일 약 100명이 모이는 곳), 시카고(60명), 포르투갈 포르투(150명)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이 절차를 따랐다. 포르투갈 남부의 시네스와 일본 스즈카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새 교회 개척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에서도 소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교인이 가족을 모두 떠나 이주했다.”라고 알칸스 올랜드의 수비라 목사는 말했다. “교회는 그들에게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수비라는 교인들이 서로 온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일자리와 단기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알칸스 올랜드에는 브라질 이민자의 미

국인 아들과 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어에 능통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교회에서 사용하길 원했다. “교회는 그들을 따라야 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6개월 전에 교회 활동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이미 포르투갈어 프로그램과 더불어 영어 예배를 시작했다. 이민자 2세, 3세들도 브라질 신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리팡은 1800년대 후반 산타카타리나주에 정착한 루터교 농부들과 함께 이주한 독일인 목사들처럼 오늘날 브라질의 많은 개신교 공동체는 외국인 교회 개척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미 성공한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다시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by FRANCO IACOMINI, CT

이방인 포용이 동성 결혼을...

(2면에서 계속)

그리고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게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을 본받으라고 명령하는 모습에서 구체화 된다. 놀랍게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즉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결합이 항상 예수님과 그의 백성사 관련 것이라고 주장한다(엨 5:22-33). 이것은 실로 성경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이며 우리는 모두

그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분명하다. 이방인으로 태어났든, 나이, 성별, 인종, 성적 이력 등으로 인해 바꿀 수 없는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의 왕국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초대는 현재 LGB 또는 T로 식별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초대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를 주님으로 영접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욕망이 죄가 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막 7:20-23).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다(눅 9:23). 그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실 권리가 있다. 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고전 6:19-20).

레즈비언 문신을 한 젊은 친구가 작년 12월에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에게 “씻김” “거룩함” “의롭다 하심”이라는 글자가 새

겨진 심자가 목걸이를 주었다. 고린도전서 6:9-11을 인용한 것이다. 그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회개하지 않는 경우 멸망으로 이끄는 죄의 목록에 동성애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11절).

나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다른 모든 죄인처럼, 그 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회개하지 않는 경우 멸망으로 이끄는 죄의 목록에 동성애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다. 그는 당신과 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셨다. 기독교 성육신을 들먹이며 구원론적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를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그에게 나아오라.

by Rebecca McLaughlin, TGC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p>동부(NY, NJ)교회</p> <p>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 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estchester NY 11357</p>		<p>뉴욕북부클린제일교회</p>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02:00 청년예배: 오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례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265-2584, www.ikcb.org 14 Green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갯세마니교회</p>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 (월-토)</p> <p>Tel: (516) 202-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654</p>	
<p>뉴욕새사람교회</p> <p>담임목사: 이종현 주 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양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 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p>	<p>뉴욕센트럴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 (월-금) / 6:00 (토)</p> <p>Tel: (516) 387-9940, 9942E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욕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청년부 예배: 오전 12: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p> <p>Tel: (718) 706-0100, www.nyo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p>뉴욕효신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전 1:30 세례기도: 오전 5:55 (월-토)</p> <p>Tel: (718) 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08 5th St, Hackensack, NJ 07601</p>
<p>베이스айд 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종식 강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예 배: 오전 5:45 진교인특별찬양예배: 매 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98, www.nybasid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p>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시 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 50분 청년예배 오후 3:40분 세례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새벽별주님교회</p> <p>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 733-3887, sb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p>온누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세례기도: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nnur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p> <p>Tel: (718) 68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93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교</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p>하와이 및 북미 지역</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p>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6:00 (월-토), 오전 6:30 (토) 금요음악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 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서울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40</p> <p>Tel: (523) 33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laza, 281 Cambui S.Paulo CP 01528-01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p>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시 40분 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p> <p>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p>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p> <p>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 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사랑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불란서 격언에 '사랑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던지... 주님과 사랑에도 온도 차이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베소 교회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식어지지 않는 첫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필자는 20

대 초반에 주님의 첫사랑을 받은 후에 이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3T(Time, Treasure, Talent)를 드려야 한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녀의 연인 관계가 뜨거워지는 것이나 주님과 사랑의 온도를 높이기 원한다면 만남의 시간(Time)이 길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오래

만나도 헤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듯이... 주님과 사랑도 계속 뜨거워지길 위해서는 영적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뜨거운 만남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밀어를 나누는 기도 시간도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연서인 독경을 통한 사귀는 시간에 길

이 빠져야 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랑의 밀어올 시간을... Time을 드릴 때 사랑의 온도는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진정 사랑한다면 귀한 보물(Treasure)을 드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교회 성도들이 왜 교회를 쉽게 떠나고 옮겨 다닐까? 목상에 보면 저들은 그 교회에 사랑의 보물을 드러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도 안타까움도 없이, 부담없이 철새처럼 쉽게 떠납니다. 사랑과 귀중한 보물을 드러낸 성도들은 그 자리에 얽매지 않고 보물의 가치가 드러날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과 사랑을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위함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내가 깨뜨려 부어드릴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사랑의 깊이를 위해서 재능(Talent)을 드릴 때 뜨거운 사랑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있었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학생회에 반주가 없어서 예배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필자는 음치였고 올건 피아노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악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주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원활치 못해 안타까움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갑자기 안타까운 심정이 솟았습니다. 누구는 뱃속에서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나왔습니까? 이제라도 해보자... 올건 밑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흰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계가 없는... 샤프(#)나 플랫(b)없는 찬송곡을 골라서 흰건반만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찾

아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멜로디만 계속하고 또 누르기를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알토를... 베이스와 테너를 한 달 동안 늘렸는데 신기하게도 '내 너를 위하여 몸부림 피흘려...' 영성했지만 4부 찬양이 내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사레비 드러서 월부로 올건을 구입하여 밤낮으로 매달렸더니 3개월 만에 모든 찬송가를 반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워... 달란트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사랑하면 음치도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목석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묘약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제라도 3T를 드러보세요. 깊은 사랑의 비밀을 맘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뉴욕중앙산정현교회)



관심 있는 일들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밤에만 남의 집을 들락거렸던 도둑들은 집 주변만 봐도 그 집을 들어가기 쉬운 지 어려운지 귀중품은 어디 있는지 척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소매치기들도 사람 얼굴만 봐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심지어 한번 지갑을 톡 치면 얼마쯤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화투치기를 오래 한 사람들은 산수 공부를 했던 안했던 숫자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만 예로 들었습니다. 나쁜 일도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면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선견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커다란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고 관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날과 그때에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똑 같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일에는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

진다고 말씀합니다. 곳곳에서 민족분쟁이 일어나고 국제전쟁도 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천재지변이 넘치고 온역 같은 전염병도 넘쳐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박해에

를 도와서 성도들이 압박한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십니다. 만일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도 많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징조들이 날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신부가 되어 후회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서 아무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

다.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주님의 때에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에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지? 농담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세상이 멸망하니까? 농담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한

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을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그날이 덧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방탕한 세상입니다. 술 취함이 극에 달해서 온갖 마약이 난무합니다. 마약 안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 생활의 염려는 얼마나 많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온갖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염려들은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덧에 걸리면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신랑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기다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 주십니다. 세상을 혼자 걸어가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늘 대화하며 도움을 바라며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늘 함께하시려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영적 잠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줍니다. 세상 염려로 둔해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깨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신부도 있습니다. 기름도 준비하지 못한 채 세상에 빠져 분주하게 살다가 신랑이 찾아왔을 때 맞아드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신랑한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날은 점점 가까워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혜로운 신부처럼 신랑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많기에 재림의 날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연히 알게 되어 준비를 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알 yourself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ang78us@yahoo.com

자연히 아는 일

누가복음 21:29-38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시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잘 알면서 어쩌해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도 무화과나무 싹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도들

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구세주이고 내게로 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지만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단들이 요란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독점한 사람들처럼 약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민족분쟁이 많아지고 국제전쟁도 빈발해

대해 말씀합니다. 믿는 가족들끼리도 서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날마다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결 짓는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님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자연히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루살렘 성이 황폐해 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절대 멸망하지 않을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에 아무리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국소적인 지역적 종말을 통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광역적 종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 받을 세상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종말을 말하면 마치 지나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종말이란 단어를 독점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 내놓기 싫어합니다. 종말은 결코 이단들만 독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당하고 10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엔가 주님은 또 하나의 멸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날 세상은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세상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화려하고 장대하고 이 세대는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오직 주님 말씀만이 최후의 승

생각과 비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의 유무에 있다. 단순한 생존의 생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말한다. 그래서 꿈도 소망도 없는 막연한 인생은 참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없다. 단순한 생명연장의 삶, 짐승과 방불한 삶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꿈과 소망이 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한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 아이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다. 예언, 꿈, 환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비전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모두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主)라 신인할 수 없기에, 모든 성령 받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도의 존재기반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마땅한 존재 기반이 되는 비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언제 그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가? 인생이 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다. 인생의 힘이 작용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고 열매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한 그 자리에서, 인생은 한없는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은 늘 기쁨을 추구한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자신의 기쁨을 너무 추구하고 찾다보면,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 결론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함을 본다. 예를 들어, 마약을 통해 기쁨의 최대치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라. 자기 자신의 끝없는 기쁨을 구해보지만, 그 결과는 피폐함 뿐이다. 마약 복용자를 보라. 끝없는 자기 기쁨을 취한다. 그러나 그 끝에는 공허함과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구하고 찾을 때, 인생이 배제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친히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의 교회 앞으로 몸을 움직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비전을 발견할 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의 보는 곳이 달라진다. 땅과 세상과 자신을 향한 욕망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돌려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하게 된다. 핍절함의 삶의 현상이 기적과 간증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회복과 축복의 증거표

과거, 한국을 보면 증거표가 될 수 있다. 가난의 보릿고개, 여름 홍수, 태풍 수해 등으로 집집마다 어둠과 굶주림의 비참함이 있었다. 그런 소망 없던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다. 술한 박해를 견디고 복음이 전파되어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사람들이 위로받고자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때였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한 꿈과 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그 꿈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자, 농한기의 투전이냐

교회에서 말씀 들으며, 비전을 품고 가면 영적회복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삶의 회복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데 그런 회복과 축복의 장이 열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추시는 것을 보고 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픈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40년 애굽공전에서 모세의 많은 학문과 열정은 자신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는 오히려 장애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정처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굽의 궁전 물이 다 빠질 만큼 초라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드디어 쓰임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주시는 사람, 말씀 들려주시는 사람은 스스로 잘난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스스로 큰 자라고 자랑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시고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사무엘상 15장의 사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옛그제 한국에서는 퀴어 축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LGBTQ란 동성애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가든그로브에서 송집사가

LGBTQ (동성애)

A: 동성애는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성향(性向, orientation)으로서의 동성애와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행동(行動, activity)로서의 동성애로 나뉩니다. 영어로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를 말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무지개인데 성적 다양성을 상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폴리가미(Polygamy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혼) 혹은 폴리아모리(Polyamory 많은 사람과의 열려진 관계, 성관계를 일대 다수 혹은 다수 대 다수)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Homo sexuals)는 동성(same sex) 곧 남자와 남자끼리(Gays), 여자와 여자끼리(Lesbians)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성(Heterosexual)입니다.

요즘은 동성애자를 LGBTQ 라고 합니다. 1) 레스비안(Lesbin)은 그리스의 에게해(Aegean Sea)에 있는 한 섬 "레스보스(lesbos)"에 있는 여성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섬에 있는 여성들 사이에 동성애가 많았다고 합니다. 2) 영어 게이(Gay)는 프랑스어 "게(Gai, 기쁜, 즐거운)"에서 나온 말로서 성관계로 육체의 쾌락을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3) 양성애(bisexuals)는 동성애자가 동성끼리는 물론이고 이성들과도 성관계(sexual intercourse)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남녀 구분없이 음란한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는 자를 말합니다. 4) 트랜스 젠더(trans gender)는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트랜스 젠더는 수술도 원치 않고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거나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성의 옷 착용(cross-dressing)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트랜스 젠더는 타고 날 때의 성과는 다른 성을 자신의 성이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며 Transsexual은 궁극적으로 성전환을 지향하거나 성전환을 이룬 사람들을 뜻합니다. 남자의 성전환 수술은 성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성 호르몬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평생 약을 복용합니다. 나중에 부작용이 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5) Queer(이상한)는 나의 성을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얼굴만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사가 성전환 수술까지 하여 인간이 마음대로 성전환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에 캘리포니아는 AB2943 (성소수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는 주의회 결정)안이 50대 18로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을 상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목회자와 교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가르치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성은 출생 시 고정되어야 하며 인위적 변경은 불가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작은 자가 천(千)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強國)을

-고난과 상처, 예배와 교회, 회복과 축복-

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고백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현실화 시켜 가도록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신자의 비전이다. 그래서 사람의 크기는 그가 가진 현재적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씨름하는 비전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전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이 끈고하고 피폐할수록 비전의 불빛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비전의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이 따뜻하고 편안한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온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삶 속에 끈고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다 싶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기쁨

왜 하나님은 인생이 풍요롭고 살만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는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피조물인 인생은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비전을 구하고 찾는 법칙

비전을 구하고 찾는 데는 뚜렷한 법칙이 있음을 본다. 비전은 하나님의 음성, 그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받는다. 또한 이 비전은 믿음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필요로 한다. 말씀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 맛볼 수 있는 열매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드려야 한다. 오직 주의 음성에 대해 믿음으로만 반응하고, 후진하지 말고 말씀 앞에 직진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한 말씀을 들음이 필요하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다. 기도가 필요하다. 들은 말씀이 믿음과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필요하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도 결코 작지 않음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분으로 전심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 믿음을 회복할 때, 기적 같은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회복의 중심에 교회와 예배가 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약할지라도, 몸을 움직여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천지가 개벽을 하여도, 우리는 주의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님

화투 도박을 내어 버리고 술과 담배를 끊기 시작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전과 후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었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았다. 세상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다. 말씀과 기도, 교회와 예배중심의 삶을 통해, 사람이 변한 것이다. 여전히 가난한 농부였지만, 그러나 꿈을 꾸는 거룩한 농부가 되었다. 여전히 상놈, 거지, 백성의 신분이었지만, 꿈을 꾸는 거룩한 상놈, 거룩한 거지, 거룩한 백정들이 되었다. 마침내 대를 이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꿈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회에 나아왔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순종했다.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했다.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불행한 행을 이길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운명도 바뀐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종들이 배출될 신학교를 위해 새벽마다 부르짖었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나라도 크게 부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꿈을 꾸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지금도 주님의

울에게 하신 말씀을 보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동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실 때를 보라.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말한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삿6:15)."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약하고 작으면 군대라도 좋아야 하는데 초라하고 작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단 삼백 명만 데리고 가서 미디안 사람 수만 명과 싸우라고 하신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로 하나님 당신께는 큰 영광을, 기드온과 삼백용사들에게는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승리를 담아주시는 분이시다.

작은 자이고 약한 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비천한 형편에 처한 모든 존재들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비천한 형편 중에라도 말씀 앞에서 있는 자들,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울 수 있는 사람들, 예배가 온전한 사람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비

전을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

최근,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실망할 일들이 꽤 생겼다. 그러다보니,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조차 작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작고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울 수 있는 사람들, 예배가 온전한 사람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비

더욱 기도가 필요하다. 들은 말씀이 믿음과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필요하다. 더욱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도 결코 작지 않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고난 중에 들은 말씀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나의 삶을 끌고 가게 될 때,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욕심과 야망이 주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갈 때, 마침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천강국(一千強國)"의 역사(사 60:22)를 보게 될 것이다.

davidnj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아이 워너 코리아!”

작년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온 가족 한국방문이 바로 열을 앞두고 다가왔다. 나와 두 아이는 6년 만이고 남편은 어느새 11년 만인 한국방문이다. 그 사이 시어른들과 친정 가족들이 다녀갔지만, 코로나와 큰아이의 입시로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한국방문은 11년 만이다. 시간이 어쩔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다행히 직장이 있는 곳이라서 경유하지 않아

도 되지만, 4인 가족이 한국에 가는 비행기 티켓 값은 일 년 전부터 따로 여비를 준비하며 모을 정도로 큰 부담이다. 그래도 온 가족이 감사하게 함께 하는 이 여름의 한국방문에 기대와 기쁨이 크다. 아이들은 벌써 맛집과 K-POP가수들의 연예기획사 방문, 남산, 유명 드라마 촬영지 등 먹고 싶은 음식들과 가고 싶은 곳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일정을 짜느라 신나한다. 아이들

과 다른 마음으로 우리 부부는 이제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과 시간을 많이 갖고 집 정리 정돈과 그동안 살펴드리지 못한 것들을 비록 짧은 시간동안 최대한 채워드리고 올 수 있기를 계획하며 모든 일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고모 결혼식 플라워걸과 가족 방문 차 5월 한 달 한국에 다녀온 앨리슨이 월요일부터 다시 데이케어에 왔다. 똑똑하고 야무진 3살 여자아이는 예상했듯이 한 달 사이 더욱 알뜰처럼 귀여운 아이로 돌아왔다. 한국에서 뒤흔나고 물어보니 쇼핑도 하고, 파티도 가고(결혼식), 놀이도, 수영 등 “So much fun!”이라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신나게 대답해 주었다. 사랑스럽게 머리를 꼬불꼬불 펴하고 돌아온 앨리슨은 다시 수업에 잘 적응하는 듯 했다. 그런데 수요일 간식시간에 ‘으허엄~’ 우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우는 아이를 찾아보

니 앨리슨이었다. 혹시 시차로 아직 몸이 피곤하거나 아파서 아이가 우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노! 노!”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서러운 듯 “아이 워너 코리아!! 으앙~아이 워너 코리아~”하며 울었다.

동료 선생님들과 나는 동시에 ‘하하하하’ 하며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나중에 또 갈 거라고 얘기하며 달래 주었지만, 우는 아이의 심정이 어른인 우리도 너무 이해가 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에 웃음이 나왔다. 아이가 진정하고 다시 스낵을 먹기 시작하자, 동료선생님은 나에게 “그래요, 얼마나 좋았어요.” 하시며, 한국에서 친척분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랑받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하고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셔서 데이케어에

매일 와야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놀러 다녔으니, 한국이 당연히 그리울만 하다고 이해한다고, 어른인 우리도 한국에 다녀오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하신다.

온 지구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모든 분야와 부문이 빠르게 변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특별히 OECD 국가 중 안타깝게 저출산과 자살률은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사회화자들이 예측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더욱 참담한 것은 매년 셀프경신으로 출산율 저하지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 2배라는 충격적인 통계에 할 말을 잃는다. 많은 학생들이 빠른 경제화와 선진화는 교육열과 경쟁 속에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 출생률과 관련 있는 세대의 자살률이 지속해서 늘고 그 주요 원인은 학업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체제라고 한다. 미주여성들의 커뮤니티에서 최근 한국에 다녀온 분들의 글을 보면 좋았던 경험도 많지만 덜 성숙된 시민의식들과 청소년들의 무례함으로 불편과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였다. 그리고 그 글들 중 대다수가 걱정하는 많은 내용은 한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놀랍도록 모든 가치를 오직 (<돈>)에 집중하는 사회현상들이라고 했다.

남편과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앨리슨과 커뮤니티 한국경험담 얘기를 하며, 한국에 갈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 걱정스런 마음은 왜 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과연 나는 이번 한국방문에 뭐라 할 수 있을까? “아이워너 코리아! or 아이워너 아메리카!”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국회의사당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 동상... 16일 제막

미국 국회의사당에 세계적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1918-2018·사진) 목사의 동상이 세워진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BGEA·회장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건물 지하실에 있는 국립 조각상홀에서 그레이엄 목사 동상 헌정식을 개



최한다. 동상은 약 2.1m 높이 받침 위에 그레이엄 목사가 손에 성경을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세워졌으며, 받침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14장 6절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자’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2013년 국회의사당에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을 전시하기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중 훌륭한 인물이 적지 않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만큼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동상 건립 취지를 밝혔다. 2018년 향년 99세 일기로 별세한 그레이엄 목사는 미국 국회의사당에 안치된 네 번째 시민

이 됐다. 그레이엄 목사는 생전 미 대통령 12명의 조인자로 활동했으며 185개 국가와 지역에서 2억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파리 밖으로 나가” 올림픽 앞두고 노숙인 정화 작업?

다음 달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노숙인 수천 명이 파리와 그 인근 지역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망명 신청자와 아이들도 포함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3일 현지 활동가들을 인용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파리 올림픽 관련 사회적 영향을 경고하는 연합 단체 ‘메달의 뒷면’은 보고서에서 경찰이 성노동자와 마약 중독자 역시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이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파리 외곽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을 모두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부터 파리와 인근 지역에서 텐트촌 해체와 추방 작업이 강화됐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지난 13개월 동안 1만2500여명이 외곽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단체 관계자는 당국이 올림픽 때 파리를 돋보이려고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사회적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그들은 양탄자 아래에 고통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노숙인에게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일드프랑스 7000채를 비롯해 프랑스 전체에 최소 2만채의 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긴급 거주지 1000여곳을 공급하겠다는 파리의 계획은 아직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파리 거리에 수천명 살고 있는 약 3600명에게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정부에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그 누구도 도시를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림픽을 담당하는 피에르 라바단 파리 부시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올림픽이 아니라 파리 거리에 살고 있는 노숙인 수”라고 강조했다.

자살 전염병에 주목하자

(1면에서 계속)

이런 간단한 상호 작용을 열거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 곧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만약에 지금 당신이 자살을 생각한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의 대화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 내가 도움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한다.

자살이 무엇인가?

최근 몇 년 동안 자살에 관한 표현이 일부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라도 과거에 누군가가 “자살을 저질렀다(committed suicide)”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살로 죽었다(died of suicide)”라는 글이 나온다. 바뀐 이유가 뭘까? 과거의 표현은 자살의 책임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살한 사람의 책임을 제거하고 대신에 그들이 겪고 있던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자살에 의한 사망(died by suicide)”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표준이 되었다. 아마도 그 동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중요한 마음 씀씀이다. 바라건대, 그런 표현 하나라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고통이나 정신 건강의 복잡성과 고통을 최소화하지 않고도 이러한 변화는 자살에 대한 성경의 이해와 더 넓은 맥락에서 자주 논의되는 내용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쁜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정신 건강을 이해하고 치료할 때 사회가 이루어 내는 상당한 진전을 기뻐해야 한다.

동시에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살은 살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살인은 죄이다. 자살은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이다.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이다. 모든 정신 건강 문제가 다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모든 자살이 다 정신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자살은 예외 없이 살인이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도덕 범주를 제거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도 정확하지 않고 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됨을 깨달아야 한다(렘 17:9, 롬 1:22ff). 자살이라는 심각한 주제를 논의하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존재하는 여러 복잡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성경의 틀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예민하고 짓눌린 영혼이 잘못된 선택을 범하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빛을 드러낼 수 있다. 자살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라는 것은 진리이다. 그럼에도 성경은 결코 자살이 우리가 고통에서 구원받는 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다른 길이 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길을 주신다. 인류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라는 죄가 결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죄의 범주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살을 자기 살인의 범주로 보는 것은 오늘날 사회적 시각과는 차이가 크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관점과는 일치한다. 주님의 교훈이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는 경유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 아

마도 자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할수록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분명한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절망에 빠져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자살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덕적 명료함을 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왜 살아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죽고 싶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울함의 어두운 구름 속에서 괴로워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일단 이런 생각이 머리에 단단히 자리 잡은 이상, 건전한 추론을 통해서 그 어둠의 그림자에 우리는 왜 살아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죽고 싶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울함의 어두운 구름 속에서 괴로워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일단 이런 생각이 머리에 단단히 자리 잡은 이상, 건전한 추론을 통해서 그 어둠의 그림자에

리고 두 사람 다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전형적인 주장을 펼쳤다. 내게 중요한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삶이 여전히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가 그 중 한 사람에게서 발견한 건, 그에게 중요한 미래는 그가 사랑하고 또 외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었다. 이 사람은 과학자였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련의 책을 쓰고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 자녀의 마음에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책

마찬가지로, 친구들에게 하나님, 가족, 친구, 그리고 교회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회를 알려주는 데 그리스도인처럼 적절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값을 치르셨고(골 2:13-14), 죄인들은 이제 의롭다고 선언되었으며(고후 5:21), 원수들이 물러났고(롬 5:10-11), 이방인은 자녀가 되었다(골 1:21, 롬 8:15-16).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소원은 임마누엘 땅으로 들어가는 티켓이 들려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베풀고, 행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인

이런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친구, 가족, 교인은 내가 행하러도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 가야 한다. 가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라.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라. 형식 상이 아니라 진짜로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 우려를 표현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위해서 자원하라. 범죄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당신 자신을 돌려라. 이 문제에서 흔히 간과되는 이들이 목회자이다.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양한 부담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쉽게 고립감을 느끼고 쉽게 마음을 열 친구가

도움을 청하라. 마음을 열라. 힘들다고 얘기하라. 기도를 요청하라

을 쓰는 이 사람에게도 그의 일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또는 미완의 작품에 대해 자신이 짊어진 책임을 푼다고 의식하는 경우에,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거의 모든 ‘어떻게 그걸 견뎌?’라는 상황까지 이겨낼 수 있다.” 프랭클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미묘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 그는 개인적인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발휘 힘을 보여준다. 프랭클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절망을 느끼거나 죄책감의 바다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책임, 그들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놓인 기회를 보도록 격려한다. 이런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와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조언이겠지만, 그 사람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다.

생은 지금 우리에게 실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신다!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누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가?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누구라도 삶의 짐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절망의 구름이 당신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라. 마음을 열라. 힘들다고 얘기하라. 기도를 요청하라. 도움을 요청하라. 절망의 탁한 공기가 당신을 질식시키도록 놔두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고립 속에 머물지 마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아예

없는 때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자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 전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형체가 필요하다. 동시에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 줄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또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도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정말로 정신 건강이 우리 시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강 위기라면, 그리스도인이 나서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내야 한다. 도덕적으로 명확하고 복음의 희망을 품고 말해야 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상의 도시 해안에 도달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우리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by Erik Raymond, TGC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 이 내용은 박홍규 목사의 번역,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인용 및 수정한 것이다.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 11장 형식적인 기도문 사용 (2)

1. 그러면 형식화된 기도문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2)

- 1) 성경에 형식화된 기도문의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자신을 위해 기도문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3) 기도문을 만들 때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에 대한 어떤 약속이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이나 복음에 의해 만들어진 규약도 없다
4) 형식적인 기도문의 기원과 그것을 사용해서 얻는 유익을 두 부류의 사람들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5) 기도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도문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눔과 거룩한 교제를 가지게 되었고 감정이 동요되었으며 마음이 더욱 좋아졌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2. 위의 사항들에 대한 해답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라

- 1) 그들이 때때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는 복음적인 믿음과 사랑 사이의 아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포나 환상이나나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며, 미가 선지자가 말하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사 17:13). 대부분의 사람들은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양심의 안도감을 찾는다. 이런 일들은 미신에 사로잡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 채, 한편으로는 공포감 속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상 속에서 이것들을 추구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의 의식이나 방식에 따라 움직이며, 본질상 동일한 속성 곧 자연을 보고 느끼는 위압감에 기초한다. 이것은 거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예배할 때 갖는 헌신이나 감정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별 상관 없는 것이다.

2)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도문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들이 기도문으로 사전에 무엇을 기도할지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인지에 대해 잘 살펴보자.

우리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 3) 형식적인 기도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문 여겨지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도의 목적이나 동기를 포함하고 있고,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의 영혼들로 하여금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인도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로 인도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실하게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받은 빛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며 자신들이 받은 빛이나 확신에 모순이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완벽하게 성경의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거룩한 규례를 어겼다. 그들을 위해 선한 왕 히스기야는 시기에 적절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대하 30:18-19).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은혜로 이를 넘기셨고 그들이 행한 일에서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들을 용납하셨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와 거룩한 예배의 모든 근본적인 목적들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기도문만이 홀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파괴하며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선한 열매들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3. 형식적인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은 과연 합법적인가?

물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기도문들을 사용해서 영혼의 큰 유익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이나 만나 보았는가? 은혜의 성령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에 반대해서 형식화된 기도문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자연의 빛 그 자체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문제는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용해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기도하는 자신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명확히 증명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팔 시루떡

우리 모두는 특정한 음식에 연결된 기억이 있다. 좋은 기억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엄마가 만들어 주신 음식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음식에 대한 추억일 것 같다. 나의 경우 어린 시절 엄마가 시루에서 막 쪄낸 팔 시루떡을 이웃집에 돌리던 떡 심부름 기억이 있다. 어릴 적에는 떡을 안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떡을 먹을 일이 있으면 다른 떡 보다 팔 시루떡이 손이 가는 것은 아마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서 일 것이다. "너는 숙절편이 좋아, 팔 시루떡이 더 좋아?" 이제 곧 미국으로 다시 떠나야 할 나에게 떡을 싸 보내려는 병상에 누운 언니의 질문이다. 지금 팔 시루떡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LA에도 팔 시루떡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을 꼭 누른다. 언니가 묵회하던 시골의 떡 집에서 만드는 떡이 맛있다고 하던 나를 챙기고 싶은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언니는 떡방아질 권사님에게 팔 시루떡에 넣을 호박고지가 있느냐고 전화를 한다. 나는 당노 전 단계여서 떡을 잘 먹지도 않고 날씨가 따뜻해서 팔이 상할 수도 있으니 괜찮다고, 그런 신경쓰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누가 우리 언니의 고집을 꺾을까. 며칠 후 언니에게 병문안을 온 시골교회 청년들의 손에는 아직도 따끈따끈한 팔 시루떡 박스가 들려 있었다. 무거워서 두 덩이만 가져 갈 것이라는 내 말에 언니는 적어도 다섯 덩이는 가져가야 된다고 말한다.

고국의 오월은 싱그러운 녹색으로 아름다웠다. 들로 산으로 나가고 싶은 이 좋은 계절에 언니는 사그라져가는 육신을 지닌 채 하루하루를 버티어 내고 있다. 의료사고로 일년 전에 소장 전체를 잃은 언니는 영양실조로 미미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평소 모슴대로 병상에 누운 채로 온갖 일을 다 지휘한다. 정신이 맑고 통증이 없어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환자가 환자 같지 않다는 다른 언니들의 꾸중 섞인 말에도 언니의 리더십은 변함이 없다. 집에서 나의 돌봄을 받으며 같이 지내고 싶던 언니의 바람과는 달리 언니는 내가 한국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입원을 했다. 조금 안정이 되는 듯하기도 했지만, 수혈이나 영양주사를 제외하고는 딱히 병원에서 치료할 것이 없었다. 의사들은 집으로 가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오래 머물 수 있는 병원으로 가라는 뜻으로 퇴원을 해도 좋다는 말을 했지만, 언니는 서둘러 집으로 왔다. 대책 없는 퇴원 소식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언니는 나에게 퇴원하는 날 같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자고 했다. 어느 식당을 가든 좋을지 알아보라고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 줄줄이 연결된 주사 줄을 떼고 동생하고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은 언니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의 삼 주 동안 금식을 했고 겨우 죽을 먹기 시작한 사람이 식당에 간다는 것은 무리였다. 다른 언니의 설득 끝에 언니는 식당에 간다는 생각을 접었다. 퇴원한 언니를 위해 엄마가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감자를 썰어 넣고 갈지조림을 만들었다. 감자가 맛있다고 몇 젓가락 먹은 언니는 결국 퇴원한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응급실로 가야 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 언니가 왜 근사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싶었던 것인지 내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한다.

언니 곁을 떠나기 전에 단 며칠이라도 병원에 머물면서 간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감기가 걸렸다. 몸도 힘들었지만 그런 상태로 환자 옆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병원으로 찾아가서 잠깐 동안 옆에 앉아 얘기를 나누다가 기도하고 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조용하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있는 병실이라서 마음처럼 언니와 함께 찬양을 할 수도 없었다. 떠나오는 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나에게 언니는 마스크를 좀 벗어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는 동생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라. "우리가 같이 묵회자의 아내여서 다른 언니들에게 못 하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언니,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면 천국에서 만나지." 나는 이제 팔 시루떡을 못 먹을 것 같다. 아니면 언니가 보고 싶을 때 한번씩 팔 시루떡을 사서 언니와 대화를 하는 마음으로 떡을 먹을 수도 있겠지. "언니, 나에게 좋은 언니가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맙워. 끝까지 믿음 지키며 평안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실 그 날, 다시 반갑게 마주 보기를..."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Diego, and San Francisco.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연약함을 감당하는 성도

뉴욕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부부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해안

을 따라서 펼쳐진 자연 환경과 야생화를 보며 아주 행복해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높은 빌딩들과 울창한 나무숲들만 보다가 답답하지 않게 탁 트인 광경과 자연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치유가 되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내외분은 이미 서부의 3대 캐년(협곡)인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 그랜드캐년을 구경하셔서 어디를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팜스프링스(Palm Springs)를 가기로 했습니다. 팜스프링스는 온천으로 유명한데 온천 이외에 방문하여 볼만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조슈아트리 국립공원(Joshua Tree National Park)과 팜스프링스 에어리얼 트램웨이(Palm Springs Aerial Tramway)입니다.

우리는 약 1시간 40분 걸려서 에어리얼 트램웨이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리얼 트램웨이는 산하산도(San Jacinto, 해발 3,302미터)의 산맥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1963년에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의 회전식 공중 케이블카입니다. 탑승객 정원 80명이 해발 2,645피트(806미터)에서 탑승하여 8,516피트(2,597미터)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된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광활하게 펼쳐진 광경을 보면 답답한 마음을 떨쳐 버리게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설레는 마음으로 케이블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케이블카에 탑승하자마자 목사님의 팔을 잡으십니다. 케이블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모님의 양

손은 더욱 목사님의 팔을 힘껏 잡으십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아내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에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갈 때는 저의 팔을 의지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내에게 쓸모가 있는 때입니다. 평지에서 서는 아내가 저 없어도 혼자서 잘 지내는데 높은 곳에 갈 때만 저를 찾고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모님처럼 보였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과 약점을 채워주게 하시려고 배필을 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목사가면 올라갈수록 사모님의 양

들은 목사와 또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약함을 짊어지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따뜻한 손길, 나의 부드러운 행동, 나의 믿음의 말이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osupbois@gmail.com



선샤인중독전문사역원 중독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영일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선샤인중독전문사역원 중독예방을 위한 세미나

"중독에 빠진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족이 도와야"

선샤인중독전문사역원(대표 김영일 목사)은 중독예방을 위한 세미나 '중독, 더 이상 외면하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6월1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LA연합교회(김수미 목사)에서 가졌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영일 목사는 "알콜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간과 뇌이다. 뇌에 알콜성 치매를 일으키고 간에는 간경화를 일으키며 성인의 경우 간경화는 술을 마시고 10-25년

정도 지나야 간경화가 나타나며, 14-18세까지 청소년의 경우 간경화는 12-14개월 정도가 걸릴 정도로 청소년들의 알콜 섭취는 심각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중독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중독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자신의 상태를 과신하는 단계, 둘째, 중독에 빠질 문제는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이 중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단계, 셋째, 자신이 중독이 되었다는 문

제인식은 하지만 문제해결을 이루는 단계, 넷째 중독이 되었지만 문제를 다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 단계"라고 설명하며 "중독에 빠진 대부분이 자신의 심각성을 부인하려 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이 중독에 빠져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경우 약물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만 약물자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 팬타닐은 진통제로 효과적이며 마리아나로 불리는 대마는 웃과 포대, 로프를 만들며 미국에서는 화폐를 만들기도 한다. 다만 약물을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약물에 대한 대처가 가족구성원들간 생각과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 치료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며 "가족구성원이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에 따라 약물대처방법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원하트미니스트리 10주년 기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원하트미니스트리-마커스워십 원하트워십

"삶속에서도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 창립 10주년 기념 마커스 워십X원하트 워십 찬양집회가 '예수 우리와 함께'라는 주제로 5월31일(금)부터 6월2일(주일)까지 열렸다. 피터 박 목사는 "10년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앞으로 10년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한다"고 말했다.

1일(토) 오후 6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둘째 날 집회는 마커스 워십X원하트 워십 연합 찬양팀(리더 심종호)의 찬양인도로 시작됐다. 이날 교회는 청년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청년의 시기를 지난 교인들은 물론 부모의 손을 잡고 참석한 어린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배자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24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세속화되는 세상, 필요한 것은 복음주의 신학"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2024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3일(월)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김현안 교무처장 사회로 열린 졸업예배는 안송주 교무학장 기도, 이재석 교수 성경봉독, 한기홍 이사장

의 '마지막 때, 사역자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요 8:29)'라는 제목의 설교로 이어졌다. 한기홍 이사장은 "공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학위 처장 사회로 열린 졸업예배는 안송주 교무학장 기도, 이재석 교수 성경봉독, 한기홍 이사장

△둘째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작정하면 GMU에서 훈련받고 졸업하는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 당부했다. 최규남 총장은 "세속화되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복음주의 신학이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희망을 주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된다"라며 "오늘 졸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이세상은 점점 더 리더십이 필요하게 된다.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졸업생들이 되기 바란다. 끊임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학위수여식은 이병구 박사원 학장이 졸업생 프 로필 소개, 시상, 최규남 총장 권면, 김종욱 목사(교단 삼임총무) 축사, 김영환 목사(문동회장) 격려사, 졸업생 일동 특송, 공로 및 감사패 증정, 최경하 졸업위원장 졸업생 대표 연설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최규남 총장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교차문화학 박사 2명, 선교학 박사 1명, 목회학 석사 21명, 기독교 상담학 석사 1명, 기독교교육학 석사 3명, 교차문화학 석사 4명, 신학 학사 4명, 기독교상담학 학사 7명 등 총 43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준호 기자)



OC전도회연합회 주최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성료

성가제 수익금, 선교사자녀 장학금으로 사용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 연합회(회장 신용, 이사장 민 김)가 주최한 제5차 선교사자녀 장학기금을 위한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가 2일(주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신용 회장은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며 "평신도들의 신앙향상과 지역교회와의 협력, 교계와의 연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꿈꾸며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선도해 가길 원하는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그 이념과 미션에 걸맞게 교회 성가 중심의 연합성가합창제를 기획하고 개최해 왔다 이번 합창제의 수익금은 '선교사자녀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일을 위해 선뜻 앞장서 주신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과 OC교협, OC목사회, 여성목사회, 장로협의회, 세계기독교어머니 기도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 참석자들의 찬양이 울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는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가합창제는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지휘 광명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지휘 이영진 목사),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지휘 강민석), LW한인커뮤니티교회(담임 용장영 목사, 지휘 김규삼), 남가주동신교회 여성콰이어(담임 백정우 목사, 지휘 노용진), 열말인생명만인교회(담임 송호준 목사, 지휘 박상훈), 열말인침례교회(담임 권태산 목사, 지휘 관수현), 오렌지미션콰이어(단장 박재환, 지휘 강민석), 워트컴여성합창단(단장 민태정, 지휘 김상기)이 출연했으며 카이로스남성중창단과 바리톤 김정호 목사가 특별출연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성가합창제는 참석자들이 함께 김미선 교수의 지휘로 '할렐루야'를 함께 부른 뒤 심상은 목사(OC교협회장/갈보리산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쉐어USA, 월드쉐어 합창단 주관

선교지 극빈이동지원 위한, 연합선교 음악회

월드쉐어USA(USA대표 강태광 목사)와 월드쉐어 합창단 주관 연합선교음악회가 2일(주일) 오후 7시 미주평안교회(담임송진 목사)에서 개최됐다. 월드쉐어 활동 소개와 함께 강태광 대표의 '사랑하게 하소서' 시 낭송이 있을 후, 이순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 담임)의 기도로 음악회를 시작했다. 이날 음악회에 출연한 합창단은 다음과 같다. △주사랑나눔여성합창단(지휘 문혜원, 반주 김현아)이 첫 무대를 장식하

고 '여정', '준비한 주, 우리 왕'을 불러 주었으며 이어 △LA 남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반주 한혜지)이 '은혜', '나의 사랑하는 책', △Los Angeles Christian Singers(반주 윤경미)가 'Amor Dei', '하나님 사랑', △Los Angeles Chamber Choir(지휘 오정근, 반주 김유경)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성령이여 내려오시사', △베아투스 합창단(지휘 김동근, 반주 이미영)이 'Didn't My Lord Deliver Daniel?', 'Soli Deo



LA 남성선교합창단 단원들이 찬양 '은혜'를 들려주고 있다

Gloria'를 찬양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5시 음악회에 앞서 강태광 목사의 신간 '손에 잡히는 크리스천행복론'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본 책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선교지 극빈아동과 장애아동 후원금으로 사용된다고 전해왔다.

(이성자 기자)

KAPC 개혁장로회대학/대학원 제 43회 학위 수여식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사역하라”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 제 43회 학위 수여식이 1일(토) 오전 11시 대흥장로교회(담임 김정훈 목사)에서 개최돼 목회학석사 스트브리, 기독교교육학 석사 그레이스 김, 편목과정 김동일 목사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양수철 박사(본교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수여식은 기도 김성일 목사(총회 총무), 성경봉독 박희성 박사(본교 교수), 설교 권혁천 목사(총회장)로 진행됐다. 권혁천 목사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요 19:5)의 제목으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상세하게 담겨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1주일의 사역이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에 빌라도는 자색 옷을 입고 온 예수를 보며 ‘바로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의 마음에 고난당해 피 흘리시며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제 학교를 떠나 사역지에 서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할 텐데 주님을 본받아 사역하는 졸업생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동진 박사(학감)의 학사보고가 있는 후, 이정현 박사(총장)가 학위를 수여했다. 스티브리 졸업생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부름에 합당한 자로 올 바른 설교자로 살아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졸업생을 위해 최태규 목사(동문회장)가 기도했으며 축사 김선중 박사(본교 교수), 격려사 유재일 박사(캐나다분교 학감)가 전한 뒤, 조대준 박사(본교교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제 43회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위임식을 마친 김홍철 목사(우)부부가 조기은퇴로 리더십을 이양한 김현인 목사(좌) 부부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왼네는 김홍철 목사

남가주든드한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및 담임목사 위임식

특별한 리더십 이양, 김현인 목사→김홍철 목사

남가주든드한교회(담임 김홍철 목사)는 2일(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드려진 설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오후 3시 김홍철 담임목사 위임식을 은혜 가운데 진행했다.

로스앤젤레스노회 주관으로 진행된 위임식은 백현 목사(로스앤젤레스노회 서기)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 돼, 김성일 목사(KAPC 총회 총무) 기도, 이훈우 목사(노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이훈우 목사는 ‘창세전 교회’(아 3:1-5)란 제목으로 “오늘 아가서 보면 ‘밤’, ‘침상’이란 인생의 위기가 병상과 같은 의미이다. 목회를 하다보면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복음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본 교회는 창세전에 계획되어 세워진 교회다. 목사는 양 무리를 잘 이끄는 양목이 되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목사 위임식을 통해 노회장 이훈우 목사는 목사와 교우들에게 서약 한 뒤 위임패를 증정했다. 이날 위임목사에게 송일용 목사(전 노회장)가 임태호 목사(시드니교회 미주대표)

가 교우들에게 권면했으며 오세훈 목사(KAPC 전 총회장)가 축사했다.

위임식을 마친 김홍철 목사는 “김현인 목사와 사역했던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눈물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며 조기 은퇴한 김현인 목사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했다. 이어 김현인 목사는 “우리 교회는 고 김충일 목사님과 사모님을 잊을 수 없다. 우리 교회 리더십 이양이 조금 다른 식이면 좋겠다 생각하고 조기은퇴를 시도 했는데 교우들의 마음이 모아져 잘 진행 되었고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이시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김인석 장로의 인사말과 광고가 있는 후 박태원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남가주든드한교회는 2001년 고 김충일 목사가 설립해 섬겨오다 2008년 질병으로 소천, 2대 목사로 김현인 목사가 부임, 지난 15년 동안 목회해 오다 60세로 조기은퇴를 선언하고 3대 목사로 부목사로 함께 사역해 오던 김홍철 목사가 추대됐다.

〈이성자 기자〉



미주장신대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장신대 44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 거행돼

명예박사 호성기 목사, 철학박사 림형석 목사 등

미주장로회신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제44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1일(토) 오전 10시 홀러튼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거행됐다.

이요한 목사(학생인재개발처장) 사회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고종필 목사(대학기관연구처)가 기도했으며 본교재학생의 중장, 서명성 목사(KPCA직전총회장)의 ‘신앙의 경주(히 12:2)’라는 제목의 설교와 축도가 있었다.

이상명 총장은 “44회 학위수여자를 축하한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은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일이고 비전 없이 사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일평생 살기 바란다. 그리고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고 그 꿈을 이뤄가야 한다. 그 꿈으로 풍성한 일상으로 살아가고 채워가기 바란다. 졸업은 배우고 깨달은 바를 사역현장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실천하는 출발점”이라 말했다.

강정자 교무처장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명예철학박사 학위수여식, 학사보고, 박

사학위 후드식, 격려사로 이어졌다. 이날 호성기 목사가 명예철학박사를 수여받았다. 호목사는 필라안디옥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성장, 발전시켜 KPCA 교단 내에서도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평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PGM선교회를 조직하는 등 미주한인교계 내 세계선교에 공헌하여 박사학위수여를 받게 됐다. 또한 이날 선교학철학박사(Ph.D) 학위수여자로 한국 예방통합 전총회장이자 평촌교회 은퇴목사인 림형석 목사가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학위수여자는 림형석 목사 등 13명이 선교학철학박사, 이성희 목사 등 2명이 선교학박사, 호성기 목사가 명예철학박사, 강진영 등 4명이 전문코칭 석사, 권신구 등 6명이 선교학 석사, 편미영 등 6명이 상담심리학 석사, 노강석 등 3명이 목회전문코칭 석사, 김보름 등 11명이 목회학 석사, 권영경 등 6명이 신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준호 기자〉



열매교회 부흥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재열 목사

열매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부흥성회 및 임직식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자”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 창립 23주년 기념 부흥성회 및 임직식이 31일(금)부터 6월2일(주일)까지 김재열 목사(뉴욕선트럴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는 주제 아래 열린 토요일 저녁 집회는 박선영 목사가 임직을 인도한 뒤 단에 오른 김재열 목사는 “육함을 깨뜨리고 삼시다”(요 12:1-8)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오늘 본문에는 네사람이 등장한다. 이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는 게 나를 사람이다’”라며 말씀을 이어갔다. “본문에 나타난 가롯유다의 마음엔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육함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보며 허비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증거 되는 곳에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들

러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육함을 깨뜨리는 성도가 되자”고 강권했다.

한편 2일(주일) 드려진 창립 23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는 최원식 안수집사가 기도한 뒤 김재열 목사가 “사명으로 삼시다”(요 21:15-23)의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은 비관론적으로 보이나 예수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원한 낙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질 것을 그리며 미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임직식을 통해 원로장로 이진호, 박태환, 명예장로 조동식, 시무장로 조경훈을 새로운 일군으로 세웠다. 이날 임직자들을 위해 조성백 목사(씨니사이드교회 담임)의 권면과 축사, 조경훈 장로의 답사가 있는 후, 안국련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는 제6회 청소년연합수련회가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에서 개최 된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합수련회의 강사는 한사무엘 목사(말랑영산신학대학원 담당, ICA수라바야 교회 부목사)이다.

▲ 문의: (323)913-4499

토랜스제일장로교회 2024 성품치유세미나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2024 성품치유세미나를 14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갖는다. 강사는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굿트리USA대표)

▲ 문의: (310)683-3036

좋은비전교회 설립 5주년 감사예배 및 말씀콘서트

좋은비전교회(담임 최운우 목사) 설립 5주년 감사예배가 9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된다. 또한 말씀콘서트를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저녁 7시30분에 갖는다. 말씀콘서트 주제는 ‘더 깊게 말씀 속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함께’이며 일정과 강사는 11일(화)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12일(수) 고현종 목사(디사이플교회), 13일(목) 안효성 목사(일신장로교회), 14일(금) 권도근 목사(나눔목 비전교회)이다.

▲ 문의: (714)482-3649

경희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음악대학 동문 음악회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총동문회에서 ‘목련’(Magnolia)이라는 주제로 음악대학 출신들을 위한 음악회를 8일(토) 오후 6시 지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클라라 신, 바리톤 권상욱, 테너 최원현, 테너 오정목의 아리아와 가곡의 향연과 기악과 피아노 임태연, 첼로 윤영진, 피아노 김송하, 비올라 박성진, 바이올린 민신명 으로 이루어진 앙상블의 공연이 펼쳐진다.

▲ 문의: (714)576-0751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학위수여자들과 교수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월드미션대 제33회 학위수여식 거행돼

“우리들의 사역은 인류구원역사의 한부분 될 것”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제33회 학위수여식을 1일(토) 오후 1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거행했다. 이날 학위수여자는 학사 53명, 석사 53명, 박사 1명 등 총 107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다. 임성진 총장은 “예수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우리는 어디에 살던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들은 학교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캐나다, 텍사스, 뉴저지, 버지니아, 뉴욕, 매릴랜드, 남미, 코트디부아르, 가나, 남아공, 리소도, 말라위, 짐바브웨, 인디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중국, 한국 등에서 공부하고 있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우리들의 사역은 인류구원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졸업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엄청난 일을 상상하기 바란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졸업식이 되기 바란다. 오늘 졸업하는 모든 학우들과 가족들을 축복한다”고 말했다.

신선목 부총장과 최윤정 입학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윤에스터 교수가 기도했으며 신선목 부총장이 학사보고와 학위수여, 총장 메시지로 이어졌다. 이어 윤성환 이사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윤성환 박사와 전경호 박사에게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이어 이예나 학우가 축가를 불렀으며 루이스 모랄레스 목사가 축사했으며 안은준 학우가 답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전경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주소망교회 장로, 안수집사 임직 감사예배

주소망교회(담임 임금빈 목사)는 장로, 안수집사 임직 감사예배를 지난 5월19일(주일) 오후 4시에 거행했다. 임금빈 목사는 “오늘 임직감사예배를 통해 장로님과 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금빈 목사

집례로 열린 이날 임직 감사예배는 송재봉 목사가 기도했으며 김용규 장로가 성경봉독, 박성진 목사(나성장로교회 담임)가 ‘선한 청지기와꾼(벧전 4:7-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홍성학 목사가 축사를, 이정현 목사가 권면했다. 이날 예배는 황대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임직받은 자는 다음과 같다. △장로: 전원찬, △안수집사: 김태석 (기사제공: 주소망교회)



고양시민·교계 “신천지의 지역 침투 절대 반대”

신천지 매입한 과거 물류센터 앞에서 반대 집회 열어

경기도 고양시 시민과 교계가 이단 신천지의 지역 내 건물 건축을 제차 반대하고 나섰다. 고양시법시민비상대책위원회(고법위)는 4일 신천지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의 손에 “신천지 OUT(아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이비 신천지의 종교용지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 신천지 물러가라”고 외쳤다. 고법위는 신천지가 과거 물류센터로 쓰인 해당 용지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해 이단 교리를 포교

하려 한다고 보고 반대한다. 반대 서명도 지속해서 받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건물 건축반대가 단순한 종교 갈등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자녀들의 학습권과 생존권하고도 관련된 일이라며 깊이 우려했다.

이날 집회에 나온 풍동은행마을입주자주민대표 최현정(56·여)씨는 “주변에는 신천지가 지역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한다는 이들도 있다”며 “고양시에서는 그 어떤 이단 교리 포교 활동도 허락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만, 관련 법규 등으로 이단 종교를 제재하지 않는 현실이 한스럽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행정소송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밤심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성용(64) 풍동입주자대표연합회 대표회장도 “신천지는 당근마켓(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반려견 산책 같이할 사람을 모으는 식으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내세워 교묘히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종교인과 비종교인 구분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같은 신천지가 고양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범위는 이날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사이비 종교단체의 지역 내 침투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고법위는 성명에서 “신천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교 활동으로 사회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이다”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변경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고양시의 결정을 100만 고양시민은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침례교도들이여 일어나라” 기침 총회 연합기도회 개막

“호흡있는 자마다 주 찬양하여라!”

한마음찬양 HMU워십의 인도에 맞춰 예배 참석자들은 제자리에서 뛰며 구호를 따라 외쳤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높게 들어 손뼉을 치는 이들과 함께 찬양을 따라부르는 이들도 다양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되자 현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로 변했다. 참석자들은 각각 눈물을 글썽이며 가슴을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평평 눈물을 쏟으며 회개기도를 하기도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총회장·1부총회장 직무대행 총무 김일엽 목사)와 다음세대부흥위원회(초대 사무총장 손석원 목사)가 주최 및

주관하는 2024 전국침례교회 연합기도회 ‘라이즈 업 뱃티스트(RISE UP BAPTIST)’ 현장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기도회가 지난 3일 저녁 강원도 곽계 찬양을 따라부르는 이들과 함께 찬양을 따라부르는 이들도 다양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되자 현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로 변했다. 참석자들은 각각 눈물을 글썽이며 가슴을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평평 눈물을 쏟으며 회개기도를 하기도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총회장·1부총회장 직무대행 총무 김일엽 목사)와 다음세대부흥위원회(초대 사무총장 손석원 목사)가 주최 및

월에 열린 목회자 성장대회와 7월 열리는 2024 침례교 다음세대 연합캠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교단 전체가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김성로 목사는 ‘복음의 능력(고후 4:3-11)’을 주제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 들이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다”면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 돼 세상을 밝고 서있으며 머린 예수님을 통해 천국과 연결돼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자고 오셨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세대부흥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인 손석원 샘깊은교회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드러진 예물은 전액 7월 열리는 청소년 캠프 등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사역에 사용된다”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불이 일어나서 침례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복음의 열정을 되찾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힘들어도 어디에 “SOS” 할지 막막한 이들 위해

만나교회, 코디네이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밝혀

생계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디로 가서 복지 신청을 할지 막막한 이들을 위해 만나교회(김병삼 목사)는 지난 4월 놓치기 쉬운 복지정보를 알려주고 기관과 연결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만나복지코디 사역을 시작했다.

만나복지코디는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우선 택 만나교회 복지코디 담당 전도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큼은 아니지만 상황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이들, 거동이 불편해 행정기관에 가서 복지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한 사역”이라고 소개했다. 교회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공공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사회복지 전문가의 도

움을 받도록 이끔 계획이다. 현재 32명의 교인이 복지 코디네이터로 참여 중이다. 사역 개시 후 접수된 16건의 요청 중 15건을 기관과의 협력으로 해결했고 1건은 진행 중이다.

계약서 없이 일하며 급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했고, 이혼 후 주거 문제와 아들의 빛으로 힘들어하는 50대 여성에게는 상담비와 긴급구호 서비스, 수급자 신청을 도왔다. 자녀 양육비 지원 중단과 폐렴유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방법과 장학금 제도를 소개했다. 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카

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1:1 맞춤형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내 신청함을 배치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현장 봉사도 계획 중이다.

사역의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도 준비 중이다. 교회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가 명예 사회복지사를 세우는 ‘우리동네 찾지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사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동네 찾지단은 ‘찾아서 지’원하는 ‘단체와 지역주민의 출입말이다. 교회는 협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성남시와 정부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신청 과정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삼 목사는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필요에 맞춰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교회의 복지 정책은 단순히 현금으로 돕는 것을 넘어 세상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보다 근본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혜택을 주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 복지의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구원과 탈퇴자들, 여고생 사망 교회, 은폐 시도...

“박옥수 사과하라”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과 계열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에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구원과 피해자들이 교단 설립자 박옥수 씨의 사과를 촉구했다.

4일 교계에 따르면 기쁜소식선교회 피해자 모임(대표 전해동)은 전날(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

리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기소선 피해자 모임은 “학생이 교회에서 같은 신도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목숨까지 잃는다는 건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기쁜소식선

교회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소선 피해자 모임은 이어 “교단 설립자인 박옥수와 그의 딸 A씨 합창단장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며 “또 기쁜소식선교회는 검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 내 가혹행위가 만연한 합창단은 즉각 해산하고 교단 산하 모든 대안학교를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A와 B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모두 “숨진 여고생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기독교 과제는 영적인 영양실조...”

목회자만 의지해선 안 돼

영적 성장을 두고 목회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맞을까.

개인의 신앙 성장을 다른 사람에게 일임해선 안 되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보 신앙을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평소 그리스도와 친밀감을 쌓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미전도종족 사역자인 오스카 아마에치나 목사는 최근 미국 현지 언론에 ‘그리스도인이 영적 성장을 목회자에

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있는 ‘아프리카미션&복음주의네트워크(Afri-Mission and Evangelism Network)’ 단체 회장이다.

아마에치나 목사는 “목사는 교인들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성경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며 “목회자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신앙이 어린 신자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존재로 여겨

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회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그는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 도전 중 하나는 영적인 영양실조”라며 “모든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은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영적 성장에 책임져야 한다. 사람(목사)이 아무리 기쁨 부음을 받았거나 지식이 많을 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적 성장을 맡겨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키워야 한다.(요 10:27)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의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 제자로 훈련 받는 것”이라며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는 데 완벽하게 적합한 분”이라고 했다.

요한일서 2장 27절과 히브리서 5장 13-14절을 인용한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희석하고 왜곡할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분과 같은 스승은 없다”고 강조했다.

학습·돌봄·제자훈련까지...

한동대 초등방과후 프로그램 눈길

서울 옥수교회(남기환 목사)는 지역 내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사진)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 19명 가운데 7명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다. 교회 측에 따르면 프로그램에는 영어, 수학, 독서토론, 코딩 교육부터 예배와 성경공부까지 다양한 신앙이 없는 아이들도 골라 따라온다. 남기환 목사는 “영어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예배도 다 같이 드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자훈련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고 귀띔했다. 옥수교회 학부모 성도 김유림(42)씨도 “초등학교 2학년과 일곱 살 두 아이 모

두 사교육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후 아이들의 학업 성적과 교우 관계가 좋아졌는데 신앙교육에 더해 실력과 인성까지 갖추게 해주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자리에는 서울 성동구 옥수교회에서 열린 VIC초등방과후 프로그램 설명회에서도였다. 옥수교회가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한동대학교 VIC초등교육자

원센터(센터장 최용준 교수)가 만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다. VIC(Vision In Christ)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다음세대 회복을 위한 교회학교 교육을 표방한다. 교회가 다음세대의 제자훈련뿐 아니라 일반 교육 나아가 돌봄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VIC프로그램을 기획한 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창의학습과 아이 돌봄 나아가 제자훈련까지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저출산 문제와 교회 내 다음세대의 회복·부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6)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선교대회와 단기선교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이번 여름 믿을 좋은 한 젊은이의 고민이다. 선교대회가 있고, 단기선교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 둘 다 모두 선교 활동과 좋은 기독교적 삶을 위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의 단기선교는 많은 이점이 있다. 나는 1984년 단기선교를 혼자 떠났다. 어떤 길로 나가야 할까 고민되는 젊은이로서 무엇인가 확실한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두 달 동안에 필리핀과 태국에서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고 사역지를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다. 물론 피상적인 경험이지만 아, 이런 나라와 민족이 있구나 정도는 느끼고 돌아와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였다.

그 이점은

1. 실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지역 사회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며 그들의 문화와 필요를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그들이 살고있는 집을 방문하고,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고 느낀 것은 보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 태국은 더욱 그렇다. 여러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며 사역지를 탐방하는 한 달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2.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편안한 환경을 벗어

남 자체가 배움의 길이다. 더욱 편안한 곳에서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나 내려놓음의 경험은 큰 개인적,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아무리 이런 기회가 있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을 가지게 된다.

3.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 종종 열악한 지역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면 보람되고 받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에서 간과되는 것들이나 사소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더욱 감사하게 된다.

4. 문화를 뛰어넘는 기독교의 공동체를 보고 다양성과 통일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너무나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나와 믿음을 같이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고 교회가 나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5. 단기선교는 관계 형성의 기회가 된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이다. 종종 단기선교를 다녀온 팀원들은 평생 좋은 친구들이 된다. 간혹 실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기회가 된다. 또한 만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평생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단기선교는 사전 준비가 많을수록 효과적이고 보람된 단기선교가 될

것이다. 오랜 시간 여행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 그만큼 준비가 잘된 단기선교는 유익이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0차 한인 세계선교대회와 같은 선교 컨퍼런스의 이점은 무엇일까. 500여 명의 선교사, 1000여 명의 목회자, 평신도 선교지도자, 젊은 MK, PK 젊은이들이 모이는 선교대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지난 36년동안 열렸던 대회가 열릴 만큼 지속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어서일까?

첫째는 네트워킹의 기회이다.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안다,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서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알고 지내는가 이다. 누구를 아는가 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아는가 이다. 아주 피상적인 운동장의 군중이 아니라, 우연한 그룹채팅방에 초청된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인 모임으로 누구에게나 네트워킹의 기회이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70여개국 이상에서 일한 500여명의 선교사들이 찾아온다. 해마다 단기선교를 간다고 해도 평생을 드러도 모두 만날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다양한 선교사들의 그룹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고, 선교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선교사

들에게도 중요한 네트워킹의 기회이다. 지역교회와 선교 헌신자들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동역의 시작이 될 기회이다. 혼자 찾아다니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둘째는 배우고 훈련될 기회이다. 너무나 좋은 강사들이 한꺼번에 모여 한 몸을 여러 개로 쪼개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좋은 배움의 기회, 훈련의 기회이다. 500여명의 선교사들은 모두가 강사이다. 특별한 분야와 영역에서 나눠주는 150여명의 강사, 발제자들은 꼭 찾아가서 배우야 할 사람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이는 것이 배워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무한한 배움의 기회이다. 저자 직강이 유명하다면 바로 그 저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셋째는 선교대회는 진정한 협력의 장, 공유의 장이다.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서 주어진 자원, 도구, 및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선교사들에게도 새로운 자원과의 연결이 기다려진다. 은사를 받은 개인들과 교회에서도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곳과 연결되고 싶다. 특히 젊은 이들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다. 서로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의 만남의 장은 진정한 선교 협력을 이루어 가게 할 것이다.

넷째는 선교대회는 감동의 장이며, 동기 부여의 축전제이다. 큰 규모의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메시지와 보고는 작은 모임에서 받기 어려운 감동을 받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된다. 같은 숫자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선교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을 드린 선교사들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모인 대회는 감동 그 자체이다.

다섯째는 해외여행의 비싼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글로벌 선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단기선교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의 아주 적은 부분으로 선교대

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시차를 많이 느끼지 않고 시차를 극복하고 찾아온 선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선교 여행에 비해 이론적인 경험이 더 많을 수 있다. 물론이다. 그러나 수많은 경험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네트워킹의 혜택도 개인의 연결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의도적인 개방성이 더욱 필요하다.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일이 단기선교에 가서 하는 노력만큼만 하라. 그렇다면 참으로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장기 목표에 더 유익되는 것은 무엇일까? 참으로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고, 선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젊은이에게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당신의 실제 경험과 네트워킹에서 선택하라. 만일 당신이 단기선교 경험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라면 단기선교 여행이 귀중한 실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면 선교대회가 네트워킹과 지식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당신이 운동 선수라면 지역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타 지역의 선수들과 경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타지역을 찾아가서 운동 시합을 해보는 것보다 올림픽에 참석하여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직접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모임에도 가고 싶을터인데.

개인적인 성장의 단계에 따라 결정해보라. 당신은 지금 지루하고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단기선교 여행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선교대회가 더 유익한 선택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는 바른 지도, 적합한 멘토링, 확장된 자원이 필요하다면 선교대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젊은이의 미래 목표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한다면 두 경험 모두가 중요하다. 선교 여행은 실질적인 경험과 문화 이해를 제공하고, 선교대회는 네트워킹, 자원,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선교에 꿈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단기선교를 개인 맞춤으로 학교의 프로그램과 가지게 되었다. 그 단기선교는 당시에는 선교라는 말도 붙이지 못하던 때이다. 두 달 동안 단기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부름을 막연하게 듣게 되었다. 그런데 2년 후 선교대회를 섬기고 참석하면서 내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의 내가 만들어져 가는 로드맵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지금도 눈물을 글썽이며 강의하던 강사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비서구권 선교사들이 나와라"고. "이제는 당신들이 선교를 해야 할 때"라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못해서 미안하던 데이빗 시먼스 교수는 외쳤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 길에서 쓰임 받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다. 오늘의 내가 있는 이유이다.

이번 여름 당신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하라. 당신의 여정에 더 유익할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자원과 연락처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나설 때 당신은 당신의 일생동안 몇 년의 시간을 절약하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후에 단기선교를 떠나서 내가 배운 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장을 보는 눈을 뜨고 바라보라.

Jesus, No Other Name!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이 선포되는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결단을 내려보라. www.kwmc2024.org

dr.yongcho@gmail.com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6)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헤아려 본 슬픔

1950년 1월 10일에 루이스에게 W. L. 그레섬(Gresham)이라는 미국 여성이 그의 글에 감화되었다며 편지를 보냈다. 그녀(본명 조이 데이빗맨)의 편지를 받고 루이스는 답장했고, 그녀는 또 편지를 보냈다. 둘은 서신으로 인생, 문학 그리고 신앙 상담을 나누며 신뢰를 쌓았고, 그녀가 1952년 9월 24일 영국을 방문했다. 루이스는 이때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다. 루이스는 당당하고 저돌적이며 몇 편의 시를 발표해 시인이었던 그녀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1953년 12월 알코올과 쾌락에 빠진 남편과 지속적인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두 아들 데이빗(David)과 더글라스(Douglas)와 함께 영국으로 왔다. 조이가 영국에 있는 동안 그녀 남편은 더 망가졌다. 그는 조이의 사촌과 불륜에 빠

지고 폭음에 빠졌다. 조이는 다음 해 8월에 이혼했다.

조이가 영국에서 정착하려는데 비자 갱신이 안 되었다. 루이스는 이 모자에게 도움을 주어 영국에서 살게 하려고 서류상 결혼(법정 결혼)을 조이에게 제안했다. 둘은 1856년 4월 23일, 옥스포드 호적등기소에서 결혼식을 했다. 호적등기소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조이는 셋집에서 살았고 루이스는 자기 집에 살았다. 루이스는 우정과 크리스천 사랑으로 그녀를 도왔다.

루이스에게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조이가 옥스포드의 졸업식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졸업식을 마친 후 루이스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했다. 그녀는 언제나 절제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

무적으로 대하는 루이스에게 화를 내며 연구실을 나섰다. 루이스는 그녀의 행동을 다소 당황하면서도 정작 '고통의 경험 없이' 고통을 말하고 '진정한 사랑의 경험 없이' 사랑을 설명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런던의 조이 가족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조이가 넘어지면서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실려 가서 대퇴부암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온몸에 전이가 이루어진 후였다. 일련의 수술 후에도 그녀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만 살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충격적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루이스에게 그의 형이 찾아와 격려했다. "아우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전해

보렴..." 루이스는 비로소 자신이 그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이스는 법적 요건을 위한 결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사랑과 성실을 서약하는 진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1957년 3월 21일 호적등기소 결혼식 후 약 10개월 만에 두 사람은 조이 병상에서 결혼식을 했다. 간호하던 수녀 한 사람과 루이스의 형이 증인이 되어 루이스의 제자였던 성공회 피터 바이드(Peter Bide)신부 주례로 정식 결혼식을 했다. 이제 그들은 서류상의 형식적 부부가 아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 늦은 나이에 만난 아내가 암 환자였다. 루이스는 암으로 투병 중이던 조이를 만나 결혼해 아주 짧은 시간에 전한 사랑을 나누다 아내를 잃었다. 루이스가 아내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적나라하게 토로한 책이 <헤아려 본 슬픔(A Grief Observed)>이다. 60이 넘는 대(大)학자요 저명한 작가요 대학교수였던 기독교 신자 루이스는 자신이 직면한 고통에 흔들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무신론자와 회의론자들의 탁월한 변증가요 진도자로 존경받던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다. 나아가 아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루이스는 흔들림과 갈등을 곧 정리하고 후 당당하게 회복했다.

루이스는 고통에 관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먼저 고통의 문제에 관해 이론적이고 객관적이고 신앙적인 논의를 담은 <고통의 문제(The Problem of Pain)>라는 책이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저지른 죄의 결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이라고 명쾌하게 해석했다.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A Grief Observed)>에서 자신의 주관적 고통을 철저히 객관화시키고 객관적 시선으로 자신을 관찰했다. 이 책은 처음에는 N. W. 클러크(N. W. Clerk)라는 가명으로 출판했다. 훗날 비평가들은 너무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낸 루이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발간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이해한다.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에서 자신이 느끼는 비탄, 회의, 분노 등등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루이스는 믿음이 있어도 아픔은 아프고 고통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여과없이 공

개한다.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고통을 당할 때 신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절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을 읽으며 하박국을 생각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하박국은 적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그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과 같고 몸이 썩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한다. 1장과 2장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했던 하박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진솔함이 그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였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자신의 고통을 넘어선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픔이 없고 의지와 이성이나 지배하는 평상시에 나도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리라 하지만 고통의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하고 절규하고 고통을 토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참모습이라 믿는다. 루이스가 하박국처럼 고난에 아파하고 극복하는 놀라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노래하는 사람들 (시100:1-5) 찬 345 장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즐거이 노래하며 온 땅으로 그를 찬송하라고 권합니다. 자신의 찬송이 온 세상의 찬송이 되며 대대로 이어지는 찬송이 되라고 하십니다. 시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마음의 노래는 영혼 건강의 사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왜 성도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가요? 첫째, 하나님만이 은혜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분에게 모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 죄 사함과 의를 얻기에 그 분을 생각할 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주님과 연합됨을 알기에 노래합니다. 원천과 연결되지 못한 은혜는 결코 누리질 못합니다. 항상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됩시다.

화 주안에 완전 하라 (시101:1-8) 찬 482장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권합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성결을 힘써야합니다. 사특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합니다. 구스내시처럼 주의 말씀을 알리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해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 관계의 죄를 경계해야합니다. 배도하는 자, 비

루한 자, 거짓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를 살펴 경계할 때 온전해집니다. 셋째, 죄를 떠나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시인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떠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순간순간 회개와 믿음의 연습을 통해 점차적으로 그의 온전하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 주께 네 근심을 아뢰라 (시102:1-11) 찬 432장

본문은 곤고한 자의 상한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기도의 동기. 그의 기도는 고난당하여 생긴 근심에서 나왔습니다. 주의 얼굴이 가리어진 괴로운 날, 원수들이 종일 미치듯이 날뛰는 때, 주의 분노로 들었다가 내 동맹이침을 당한 징계의 순간이 참 기도를 드리는 기회였습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 그의

기도는 속히 응답해달라는 갈구였으며 연기처럼, 냉과리가 타는 것처럼, 쇠잔하는 풀처럼, 피골이 상접하여 재가 음식이 될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서 부르짖고, 광야의 당아새나 황폐한 곳의 부엉이나 지붕 위의 참새처럼 처량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대는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성도의 기도가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목 시온을 회복시키는 분 (시102:12-28) 찬 280장

아무리 환난 속에 있다 해도 주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대를 거는 자는 회복의 소망을 얻습니다. 첫째, 누구를 회복시키는가요? 시온과 민족과 나라로 명시된 창조 받은 택한 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가리키며 생수의 강이 흐르고 마음의 온갖 더러움을 씻는 죄 사함을 가리킵니다. 둘째, 누가 회복시키

는가요? 영존하신 분이며 공룡이 풍성하신 분이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분만이 반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룡의 바다에 뛰어들어 놀라운 시온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자가 됩시다.

금 주를 찬양하라 (시103:1-22) 찬 31장

계시록에 보인 천상보좌에 계신 분을 향한 천군천사처럼 시인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왜, 어떻게 찬양하는가요? 첫째, 찬양할 이유. 한마디로 풍성한 구원 때문입니다. 4중적 이유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1) 죄 사함, 2) 질병에서의 치유, 3) 존귀함을 주시고 4) 영혼의 참 만족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5) 베푸신 하나님의 의와 자비로 인하여

찬양했습니다. 성도의 찬양할 이유는 모든 복의 노란 자위 인 구원 (salvation) 때문입니다. 둘째, 찬양의 방법. 영혼 깊숙한 곳,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신은 티끌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찬양이 나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 가정에도 이 찬양이 흘러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104:1-9) 찬 79장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중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들을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며 오로지 찬양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 하실 때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있었기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며 즐거움이 됩니다. 세상 풍파 닥쳐 올 때에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담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갑시다.

기독교교육 (50)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일반적으로 교육과 훈련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각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訓練/訓練)은 “기본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힘, 또는 가르쳐서 익히게 함”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방법을 숙달하게 하는 가치중립적인 과정입니다. 반면에 교육(教育)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을 의미하며, 이해와 통찰력의 폭을 높이도록 가르치는 가치지향적인 과정입니다.

복음을 통한 중생(重生)을 선포하는 교회에 훈련보다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사명과 성령님의 역사에 맞닿아 있으며 인격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독교교육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창 1:3). 이것이 곧 하나님이 교육을 하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목적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목적과 능력을 가진 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육적인 일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의 교육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와 맞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핑계를 내세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15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보는데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교사가 되어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들을 교육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6:4-9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로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볼 때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첫번째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동산을 찾아가셨습

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야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랍오니(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자나 치료자라고 부르지 않고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약 90년에 걸쳐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때 사용된 호칭들 중 약 60번은 “랍비”였습니다.

마태복음 5-7장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하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그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육지침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 기독교교육의 기능은 성령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保惠師)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보호해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으로서 그리스도들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였고, 쓰여진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름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요 16:13).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신 32:4), 예수님이 진리이시고(요 14:6),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십니다(요 17:17).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기본적인 은사는 교사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4-11에서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밝히고, 여러 은사들을 나열했습니다. 은사들 중 처음의 두 가지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육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12:28-29에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의 직분에 대해 차례대로 언급합니다. 즉, 성령님은 교사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이 교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령님이 친히 끌어주시고 밀어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자 하는 교회는 훈련보다 교육에 치중해야 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85.부부관계

전통적으로 부모자식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삼친(三親)이라 불려왔습니다. 이 삼친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없으면 부모자식도, 형제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인륜지시(人倫之始) 만복지원(萬福之源)이라 하며,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뜻이지요.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얼마나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만한 부부관계에서 의좋은 형제관계와 배려하는 부모자식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확장해 나가면, 사회에서도 역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며 공동의 행복을 창조하고 인류의 기초를 다지는 부부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큰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신중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삐걱거리며 안 좋은 관계에 처한 것을 '금슬부조지탄(琴瑟不調之歎)'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금슬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한숨 짓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퇴계선생에게 아내와 이혼하는 문제를 자문을 구하자 퇴계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에게 금슬부조지탄이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사는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인의 성품이 너무 모질어서 도저히 교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너무 하는 짓이 밍고 지혜롭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남편도 너무 성질이 불같이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일반상식과는 너무 괴리가 있어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하니, 그 밖에 수많은 이유를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남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잘

게 넘겨 퇴계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전통적으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진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린(逆鱗)의 화(禍)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온순한 용도 자신의 목에 있는 건드려서는 안 될 비늘, 역린을 건드리는 순간 물어 죽인다는 한비자의 고사 말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밍다고 해도 부부에게는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따뜻하면 숨 같을 수도 있고, 날카로우면

셋째, 배려해야 합니다.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라!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입장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할 때, 그 배려는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은 명확합니다. 군자의 도는 부부관계에서부터 단서가 만들어집니다(君子之道는 造端乎夫妻라!). 그 관계를 확장해 나가면, 결국 천지의 이치를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세상 모든 이치의 시작과 실마리

대처하여 부부의 도리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인이 당신의 맘에 딱 들지 않는다고 길 가는 사람처럼 대접하고, 원수처럼 여겨 가정이 파탄하고 행복의 근원을 파괴하는 결과를 원하십니까? 반복하여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째 부인과 사별하고, 둘째 부인 권씨와 재혼하였던 퇴계는 정신이 약간 온전치 못한 부인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슬기롭

게 넘겨 퇴계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둘째, 심사숙고하여 참아야 합니다.

부부가 한번 참으면 평생 해로할 수 있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식이 고독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夫妻忍之면, 終其世하고, 夫妻不忍이면, 令子孤라!). 부부관계는 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연계되어 있어, 가족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及其至也엔 察乎天地니라!)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부부론(夫婦論)입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국 부부관계에서 모든 실마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간의 실마리를 확장해 나가면, 결국 세상의 모든 이치를 살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中庸)다운 성찰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세상 모든 이치의 시작이자 실마리라고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칼라브라 종족

▲ 인구 약 3,290명

▲ 종교 민족종교 30%, 이슬람교 2%, 복음화율 68%

▲ 복음매체 성경번역필요, 복음 매체 있음

▲ 종족 프로파일 파푸아섬 북서부 해안가에 살며 낚시를 하고 세고와 생선을 많이 먹는다. 마을 밖에 있을 때는 카누 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생활한다. 브라우르족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칼라브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교회에서는 공용어 성경을 사용하나 이해도가 떨어져 칼라브라어로 설명을 해야 한다.

▲ 기도제목 1. 이해가 쉽지 않은 공용어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는 칼라브라족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배움의 기회를 주시도록 2. 칼라브라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칼라브라어 성경이 속히 번역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Midwest University 개교 38주년 기념 음악회 및 학위수여식

세인트루이스본교 정진경 박사 세계선교기념관에서 열려

Midwest University(설립자·총장: Dr. James Song)는 개교 38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세인트루이스 본교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졸업 세미나(특강), Midwest Concert를 개최했고 23일에는 2024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5월 22일에는 개교 38주년 기념 "Midwest Summer Concert"가 본교 정진경 박사 세계선교기념관에서 열렸다. 저녁 6:30분

부터 시작된 콘서트에는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등 금년에 졸업하는 음악전공자들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선율로 높은 기량의 음악성을 선보였다.

23일 오전 10시 Dr. Earl Haskins(본교 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본교 이사장 Dr. Lindell F. Shumake 전, 미주리주 하원의원이 메시지를 전했다. 교무처장 이희철 교수의 2024년 졸업생 학사보고를 마친 후 Dr. James Song 총장이 2024년도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Midwest University 학위수여식

이여 한국의 공무원으로 우리 대학교 교환연구원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지난 1년 혹은 2년간 미국 훈련기관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는 연구원들에게 Research Scholar Certificate를 수여했고, 본교 부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학위 수여식에 이

어 Nick Guccione(Wentzville 시장)와 Bryan Spencer 본교 이사의 축사, Peter Ko 박사의 축사로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Midwest University 문의는 (636)327-4645, usa@midwest.edu, www.midwest.edu 하면 된다. (정리·홍현숙 기자)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Includes text: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120대 주차장 완비', 'Q28, Q13 버스정류장 앞'. Contact info: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인/터/뷰

권혁천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다음세대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도움 되고파”

지난 5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샌프란시스코 Embassy Suite Burlingame Waterfront에서 열린 제 48회 미주한인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권혁천 목사를 만나 앞으로 총회를 향한 사역의 비전과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20년 전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권혁천 목사. 권 목사가 느끼는 교회는 '어머니 같다'고 표현한다. 그 이유를 묻자, "교회는 푸근하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이 풍성한 곳, 함께 하면 행복한 존재가 교회다. 그래서 제 목회는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껏 지나왔다."고 그의 목회 철학을 들려준다. 권 목사는 한국에서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버지니아에 소재한 Liberty University에서 Th.M과 D.Min 과정을 수료했다. 그가 처음 공부와 목회를 시작한 곳은 필라델피아. 그곳에서 1994년 KAPC교단에 소속이 되었고, 올해 총회장이란 큰 직무를 맡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신학적 정체성을 지닌 교단)

총회장 권혁천 목사에게 교단을 소개해 달라고 묻자, "중



권혁천 목사

이미 파송과 협력의 관계를 갖고 있는 116곳의 선교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중요한 보루이기도 하고 특히 31명의 군목을 미국 군대에 파송하여 이 나라의 미래 리더들을 복음으로 세워나가고 있다."고 교단을 소개했다.

(직책 보다는 역할이 중요해)

자랑스런 교단, 이 교단의 총회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한 회기를 이끌어갈 계획을 묻자 "세계 여러모로 과분한 직분을 총회가 맡겨주셨다."고 겸손을 표하며 "하나님과 총회 모든 동역자들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직책보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총회장으로서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양한 목회적 도전들에 응원과 격

고민하고 시도해야 하는 도전의 시대)

작금의 교계와 교회에 대한 권혁천 총회장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팬데믹은 육체에 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정신과 나아가 신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교회는 많은 지표들이 교회의 위기를 전망한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교회와 믿음의 본질을 고민하게 되었고 성경적 교회와 신자의 삶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들려준다. 또한 그는 "목회도 단순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도우실 은혜를 기대 해야)

끝으로 그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어떤 시대의 부정적 표지를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시대 우리는 지금 보다 더 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이미 베푸신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면 다시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다시 이 비신앙적인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기를

“팬데믹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며 위기의 시대에 교회와 믿음의 본질을 고민하게 되었고 성경적 교회와 신자의 삶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돼”

교개혁이후 개혁교회의 가장 분명한 명제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신학적 정체성을 지난 반세기동안 지켜온 자랑스런 교단"이라고 명확하게 들려주며 말을 이어갔다. "잠시 내홍의 시간을 지나기도

했지만 소속된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애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귀한 교회의 모습이라 자부한다"며 "세계를 아우르는 교단의 지경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이며

려를 보내 다음 세대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피력했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시도해야 하는 도전의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교회와 성도가 이 기간을 자성과 회복의 시대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교회들은 지난날의 불명예를 씻고 하나님께 영광

바란다."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 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맺었다.

(이성자 기자)

이용규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Faith Theological Seminary 종교교육학 박사



60여년 목회, 2014년 소천 (LA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 시무)

강해설교집 목록

- 제1권 주의길을 예비하라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2권 아가서 강해 제23권 선한목자와양 제3권 너희구원을 이루라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25권 피할수 없는 하나님 제5권 썩지 않는 면류관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제6권 스가랴서 강해설교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제7권 위기를 이기는 길 제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9권 룻기서 강해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10권 새천년에 할 일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32권 간추린 신학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34권 위대한 사랑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35권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제36권 큰 산아 평지가 되라 제16권 진정한 평화 제37권 경건한 신앙생활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18권 십자가의 도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제40권 갑절의 영광 제20권 인간의 복된 사명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희망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아버지의 날 설교”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제 24권에서 발췌

본문(Scripture) 이사야(Isaiah) 49:14-17
제목(Topic)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The love of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특성]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love of the Father]

- (1)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 14 (A love that does not forsake)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 (Reasons that God does not forsake) (A)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심 엠(Eph) 1:4,5 (He chose you in love) (B) 사랑함이 영원 불변하심 히(Heb) 13:8 (His love is eternally unchanging)
(2)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 15상 (A love that does not forget)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이유) (Reasons God does not forget) (A) 피를 흘려 자녀로 삼으심 고전(1Co) 6:19,20 (He shed His blood to make us His children) (B)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심 출(Ex) 2:24 (He remembers the covenant He made)
(3)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15하 (A love that is full of mercy)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방법) (God's method of mercy) (A) 큰 죄를 긍휼로 용서하심 마(Mt) 18:33, 34 (Great sin is forgiven through mercy) (B)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심 사(Isa) 49:13 (He comforts the afflicted)
(4)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 16,17 (A love that inscribes on the hand)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신 결과) (The results of His inscribing on the hand) (A)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함 요(Jn) 10:28 (None can take us out of His hand) (B) 살피주시고 붙잡아 주심 시(Ps) 89:13 (He cares for and upholds us)

설교본문: 이사야 49:14-17

-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든지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LA 동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오]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설교집신청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